



제2889호

대표전화: 02)799-2600 / 구독: 02)799-2684



LG, 코엑스서 모빌리티·6G·AI 뽐낸다 12



이영,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찾는다 14

코스피(17일)	2620.44 (+23.86P)	코스닥	865.98 (+9.73P)
환율(달러당 원화)	1275.00 (-9.10원)	금리(국고채 3년물)	3.031% (-0.015%p)

## 현대차 '美친 질주' 국내 매출 첫 추월

### 1분기 북미 11.6조, 韓 9.5조 코로나 팬데믹 이후 판매량 쏙 "신차, 베리 굿"... 強달러 한몫

현대자동차의 1분기 북미시장 매출이 국내시장 매출을 처음으로 추월했다.

17일 현대차와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1분기 현대차의 북미시장 매출은 11조 5713억 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내시장은 9조 4522억 원 매출을 올리는 데 그쳐, 북미시장 매출액이 약 2조 1200억 원(22.4%) 앞섰다. 북미시장이 국내시장을 추월한 것은 2010년 국제회계기준 IFRS가 도입된 이후는 물론, 지역별 매출을 공시한 2014년 후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

그동안 북미시장은 꾸준히 국내시장 매출과의 격차를 줄여왔다. 연간 매출 기준 2014년에는 국내 실적이 54조 3440억 원을 기록한 데 반해, 북미시장 매출은 62.5% 수준인 33조 9988억 원에 머물렀다. 이듬해인 2015년에도 북미 연간매출(36조 3949억 원)은 국내(55조 9090억 원)의 65.1% 수준에 그쳤다. 북미시장과 국내시장의 매출 격차가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은 코로나19 팬데믹(2020년 3월) 이후다. 2020년 현대차의 연간 국내시장 매출은 전년(60조 2245억 원) 대비 33.1% 감소한 40조 2842억 원에 그쳤다. 이 기간 북미시장은 전년 44조 375억 원에서 36조 6283억 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국내시장이 33.1% 감소하는 사이 북미시장의 감소세는 마이너스 16.8%에 그쳐 상대적으로 선방했다.



정의선 회장

두 시장의 매출 격차는 이후 더 줄어들었다. 지난해 북미시장의 매출은 40조 7504억 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국내시장 매출(41조 3322억 원)의 98.6% 수준이었다. 이런 양상은 올해도 고스란히 이어져 지난 1분기 북미시장이 국내시장을 22.4% 추월했다.

1분기 신차 판매도 국내시장보다 북미시장이 더 많았다. 북미권역 가운데 미국에서만 1분기에 15만 9776대를 판매했다. 국내에서는 15만 2098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국내 판매에는 미국에서 팔지 않는 상용과 트럭·버스 등을 포함한 판매 수치가.

내수 완성차 시장이 본격적인 저성장 기조에 접어들면, 북미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전략이 본격화하면서 판매를 끌어올리는 중이다.

현대차의 북미시장 매출이 국내시장 매출을 추월한 데에는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렸다.

2020-2021년 쏟아낸 신차들이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고, 고급차 브랜드 제네시스 SUV로 제품군을 확대하면서 매출을 끌어올렸다. 2월 말 발발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이후 '강(強)달러' 여파가 본격화하면서 환차익도 힘을 보탤었다.

현대차 재무담당 관계자는 "지난해 3분기 회계 중에도 월매출 기준으로 북미 실적이 국내 실적을 앞지른 적이 있지만 1분기부터 현지 매출이 국내 실적을 이저럼 크게 웃돌기 시작한 것은 처음"이라며 "단순한 환차익이 아닌 구조적인 변화와 반도체 부족에 따른 생산·수출 전략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린 결과"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공사비 갈등에... 둔촌주공 타워크레인 철수

1만2000가구 규모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시공사업단이 17일 타워크레인 일부 해체에 들어갔다. 시공사업단은 조합과 공사 중단 이전에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태도 변화가 없어 선제적으로 철거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날 둔촌주공 재건축단지에 타워크레인이 멈춰 서 있다. ▶관련기사 2면 조현호 기자 hyunho@

## 尹, 한동훈 임명 강행... 與野 강대강 대치

### 김현숙도... 정호영은 보류 민주 "협치 꺾다" 강력 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한동훈(사진)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임명했다.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일단 보류했다. 이로써 국무총리를 제외하고 18개 부처 중 교육부와 복지부를 제외한 16곳의 장관 임명을 완료했다.

▶관련기사 6면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5시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조금 전 한 장관과 김 장관을 임명, 재가했다"고 밝혔다. 두 장관은 윤 대통령이 국회에 1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요청을 한 터라 언제나 임명이 가능한 상태였다.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



졌다.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도 불투명해졌다.



민주당은 이날 한 장관 임명에 대해 "야당과의 소통, 협치는 내팽개쳐졌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현영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소통령', '왕장관'으로 불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중 측근"이라며 "야당이 뭐라고 하든, 국민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주머니 속 장기말'처럼 쓰겠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당초 16일 여야 대표와 만찬회동을 가지고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합의를 이룬 뒤 임명한다는 계획이었다. 추가 경쟁예선안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하고 야당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약속을 청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회동을 거부하자 임명 강행으로 기류가 바뀌었다.

마지막 협상 여지는 남겼다. 정 후보자 임명을 또다시 미룬 것은 민주당을 의식해서다. 민주당 내에서도 새 정권 초대 총리 인준안을 부결시키는데 부담을 느끼는 기류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은 정 후보자 낙마카드로 설득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협상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한 장관 임명을 계기로 총리 인준안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 임명으로 윤 대통령이 인사 참사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총리 인준을 시켜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정 후보자를 낙마시켜도 의원들이 부결 투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김베리 기자 kimstar1215@

## 버냉키 "1~2년간은 스태그플레이션"

### "파월, 눈치보다 대응 늦어"

벤 버냉키(사진) 전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제롬 파월 현 의장의 인플레이션 대응에 쓴소리를 날렸다. 시장 눈치를 보느라 대응이 늦었다며 그 여파로 1~2년간 스태그플레이션(경기둔화 속 물가상승)을 맞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16일(현지시간) CNBC방송과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연준이 언제 개입해야 하는 게 적절한지는 꽤 복잡한 문제면서도 파월 의장의 대응이 늦었다고 말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연준을 이끌면서 경기회복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물가가 40년대 최고치로 치솟은 상황에서 연준이 (긴축 타이밍을) 기다린 것은 실수"라고 지적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연준이 실수를 저지른 원인 중 하나로 시장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3년 '테이퍼 탠트럼(긴축발작)'을 경험했던



파월이 시장에 경고를 보내면서 충격을 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준발 양적완화 정책에 힘입어 경제가 반등에 나선 이후에 그 조치를 너무 늦게 거둬들이어 인플레이션을 방치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파월 의장은 지난해 초, 물가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를 상회하기 시작했음에도 '일시적'이라며 대응을 자제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낙관적으로 봐도 1~2년간 성장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약간 오르며 물가상승률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게 바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공격적 기준금리 인상에도 연준이 연착륙(경기침체 없는 물가 상승 억제)에 성공한 역사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파월 의장이 1994년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분석한다. 당시 앨런 그린스펀 연준 의장은 2월부터 1년간 7번에 걸쳐 금리를 3%에서 6%로 끌어올렸다.

김서영 기자 0jung2@

## 납품단가 연동제 추진...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확대

### 국힘, 하도급법 개정 추진 화물차에 1당 50원 더 줘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하도급법 개정이 추진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7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납품단가 연동제를 위한 (법적) 검토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 의장은 "하도급법(개정을) 통해 강제화하고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의 틀을 만들겠다"면서 "표준계약서(작성을) 의무화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 (세부업종 선정은) 시행령의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의장은 "고물가와 교환을 등으로 어

려운 경제 여건을 슬기롭게 헤쳐가야 한다"며 "물가가 치솟는 와중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자재 가격이 낮아질 때는 중소기업이 (받는 납품단가도) 함께 내려가 줘야 한다"며 "대기업에 모든 부담을 떠안으라고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원청업체와 하청업체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변동분이 납품단가에 반영되게 하는 제도다. 기업들의 표준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게 국민의 힘이 준비 중인 하도급법 개정안의 골자다.

정부는 화물차와 택시 등 경유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의 기준금액을 리터(1)당 1750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는 경

유 가격 급등에 따라 유류세 인하 30%가 적용되는 이달부터 7월까지 기존 유가보조금 수급 대상인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한시적으로 운영 중이다. 유류세 인하에 따른 유류세 연동보조금 감소분 중 일부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메워주는 것이다.

현재 리터당 1850원을 기준으로 초과분의 50%를 부담하고 있는데 기준가격을 리터당 1750원으로 낮춤에 따라 화물차 운전자가 받는 보조금도 증가하게 된다. 가령 경유 가격이 리터당 1960원일 때 지급 기준가격이 1850원이라면 정부가 리터당 55원을 줬지만, 1750원이 되면 종전보다 50원 오른 105원을 주게 된다. 추가 지급 시한도 애초 7월 말에서 9월 말까지 연장된다.

정일환 기자 whan@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 극한까지 간 둔촌주공 사태... 결국 크레인까지 해체

##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 '악화일로'

'6000억 증액 갈등' 공사중단 한 달째  
"임차·관리비·대출보증 더는 못 버텨"  
조합원 6000명 전세난민 전략 위기

'1만2000가구' 규모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둔촌주공 시공사(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는 17일 타워크레인 일부 철수를 시작했다. 조합이 협의를 지키지 않으면 공사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투데이 취재 결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사업지 일부 구역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을 시작했다. 총 4곳의 건설사 중 롯데건설 담당 구역의 크레인이 우선 철수에 나섰다. 현재 둔촌주공 사업장에는 총 57대의 타워크레인이 설치돼 있다. 시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공사가 중단된 이후 한 달간 타워크레인 유지 비용 등 현장 유지비용으로만 약 150억~200억 원이 소모된 것으로 추산된다. 타워크레인 철거 기간은 두 달 정도로 예상된다. 시공사는 "철거 후 재설치까지 최대 반년 이상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 출처: 서울시

위치	서울 강동구 둔촌동 170-1 일대
면적	62만6232㎡
가구수	1만2032가구(임대 1046가구)
공정률	약 52%(지상골조 공사 중)
조합원 수	6122명
갈등현황	2019년 12월 착공 2020년 6월 공사 변경계약 체결 2021년 5월 현 집행부 선출 2022년 3월 사업시공단 공사 중단통보 현 조합, 이전 조합 공사 변경계약 무효 소송 제기 4월 15일 시공사 사업단 공사 중단 5월 17일 일부 시공사 타워크레인 해체



이 때문에 건설업계에서도 타워크레인 해체를 조합과 시공사 간 결별 통보로 내다보고 있다. 시공사 담당 관계자는 "조합과 공사 중단 이전에 수차례 협상을 이어왔지만 현 조합의 태도 변화가 없어 결국 공사 중단 사태에 이른 것"이라며 "이런 타워크레인 철거는 공사 중단 장기화 등을 고려해 일부 업체가 선제적으로 철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상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시공사는 지난달 15일 공사 중단 이후에도 타워크레인을 철거하지 않았다. 하지만 조합과의 협상이 진전 없이 평행선을 달리자 타워크레인 철수라는 극약처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공사는 조합과의 합의가 지연되면 7000억 원 규모의 사업비 대출금 보증 연장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둔촌주공 조합은 재건축 사업을 위해 이주비 대출 1조4000억 원, 사업비 대출 7000억 원을 받았다. 이 중 사업비 대출 7000억 원은 시공사의 보증을 통해 이뤄졌다. 이주비 대출은 7월, 사업비 대출은 8월이 만기다.

시공사 측은 무엇보다 사업비 대출 연장 여부는 조합과의 합의가 전제돼야 함을 강조했다. 시공사 담당 관계자는 "조합이 대주단(돈을 빌려준 단체)에 사업비 대출을 연장에 달라고 요청했다"며 "사업단은 우선 발주자 결정에 따르겠지만, 차주(조합)가 이를

감지 않으면 사업단이 대위 변제 후 법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공사업단과 현 조합 간 갈등 원인은 공사비다. 양측은 공사비 6000억 원 증액 문제를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공사 중단 사태를 맞았다. 둔촌주공 옛 조합은 2016년 시공사업단과 1만1106가구(공사비 2조6000억 원) 규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2019년 사업시행계획 변경으로 기존 가구 수보다 926가구 증가한 1만2032가구로 바꿨다. 2020년 양측은 공사비 6000억 원을 증액한 3조2000억 원에 1만2032가구를 짓는 공사변경계약을 맺었다.

같은 해 8월 해당 계약을 맺은 조합 집행부 해임안이 가결됐고 지난해 5월 현재 집행부가 선출됐다. 현행 조합은 이전 집행부가 맺은 계약이 "철차적·내용상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에 시공사업단은 비용 문제 등을 들어 지난달 15일부터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유치권 행사에 나섰다.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갈등으로 당장 입주 준비 중이던 조합원 6000명은 전세 난민이 될 처지다. 조합원은 공사가 지연되면 이주비 대출이자를 포함한 금융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공사계약이 실제로 해지되면 시공사업단에 '조 단위'의 미지급 공사비와 사업비 대여금을 지급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한다.

정용욱 기자 dragon@

## 원가 오르고 배달 줄고 치킨업계 파티 끝났다

### 1분기 생계 평균 가격

(단위: 원, 중품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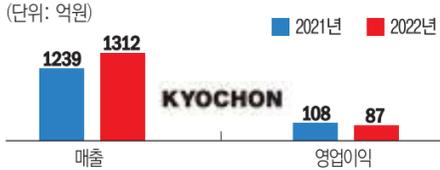
※ 출처: 한국육계협회



### 교촌에프앤비 1분기 실적

(단위: 억원)

※ 출처: 교촌에프앤비



코로나19에 따른 배달 음식 수요 증가로 호황을 누렸던 치킨업계에 위기가 찾아왔다. 원재료 가격 상승, 리오프닝에 따른 외식 증가 등으로 올해부터 실적이 하락세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올 초 치킨업계가 일제히 제품 가격을 인상해 반등을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부족한 만큼 위기 탈출 해법에 고심하고 있다.

1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의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5.9% 성장한 1312억 원으로, 분기 기준 최대 매출을 달성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지속적인 매장 수 확대 등에 따른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교촌치킨 매장 수는 올해 3월 말 기준 1342개로 전년 동기 대비 58개 늘었다.

영업이익은 19.3% 감소한 87억 원에 머물렀다. 역대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한 배경에는 '원재료값 폭등'이 자리 잡고 있다. 러시아

## 식용유·생닭값↑... 교촌 영업이익 19.3% 감소 마진 줄어드는데... 가격인상벤 외면 불 보듯

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연이은 악재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면서 식용유, 생닭 등 원재료 가격은 전년 대비 크게 상승했다. 한국육계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생닭(중 기준) 평균 가격은 2457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1% 올랐다. 식용유 가격도 많이 뛰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해포 맑고 신선한 식용유(900ml)는 올해 3월 중순 기준 4437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149원)보다 약 7% 상승했다.

비상장사인 bhc그룹, 제너시스BBQ의 영업이익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bhc는 올해 초 교촌치킨과 함께 원재료값 상승을 이유로 제품 가격을 인상했다. 가격 인상 조치로 치킨 프랜차이즈의 대부분 제품 가격은 2만 원을 넘어섰다.

치킨업계의 실적 부진은 1분기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체에 따른 외출 증가로 배달 음식 수요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18~21일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이용자(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준)는 1855만2775명으로 전월 같은 기간 대비 약 21% 줄었다.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치킨업계는 가격 인상 카드를 꺼내 들기 쉽지 않다. 올해 초 가격 인상을 단행한 만큼 또다시 제품 가격 인상을 추진하면 소비자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기 때문이다. 유희근 제너시스BBQ 회장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3만 원 정도 돼야 한다"고 발언한 후 소비자들의 비판이 이어졌다. 누리꾼들은 "원재료값이 내려가면 과연 치킨 가격을 내릴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생활체육TV에서는  
**K리그2**  
생중계 중!

변경 전

214

▼

변경 후

161

## 생활체육TV

LIFE & SPORTS

채널 번호 변경 안내

KT skylife 채널 개편에 따라  
생활체육TV 채널 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 제네시스 끌고 강달러 밀고... 북미 시장 '이유 있는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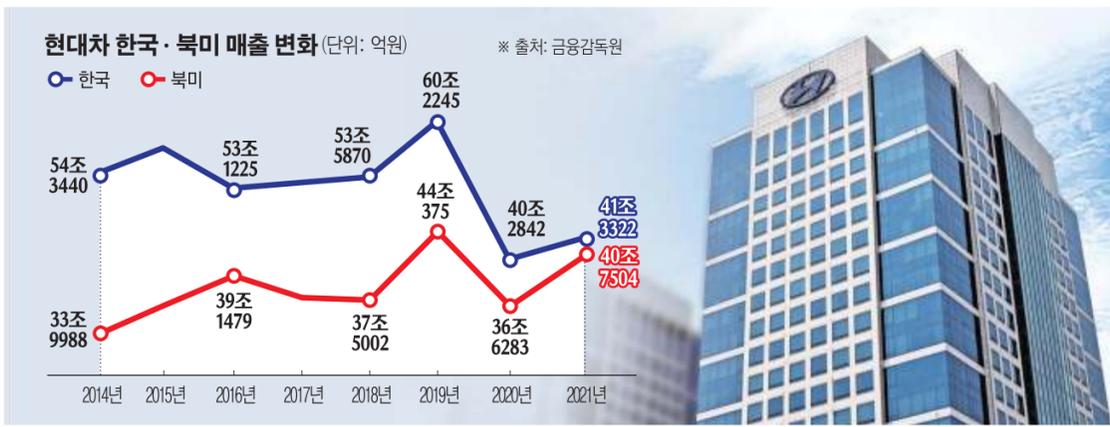
## 현대차, 韓·美 매출역전 배경

판매마진 높은 고급차 시장 약진 SUV 등 차종 다양화 전략 주요 국내공장 가동률 높여 수출 집중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도 한몫

현대자동차의 북미시장 매출이 안방인 국내시장 매출을 추월한 배경에 다양한 분석 결과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와 원·부자재 인상 등 대외적인 변수를 비롯해 현대차 자체적인 판매와 수출 전략이 반영된, 한마디로 의도된 결과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현대차가 16일 공시한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1분기 미국 매출(11조5713억 원)은 같은 기간 국내 매출(9조4522억 원)을 약 2조1200억 원(22.4%) 앞섰다.

지난해까지 연간 매출 기준 북미시장 매출이 국내시장 매출의 98%를 넘어서면서 매출 역전을 전망하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북미 매출의 광폭 성장은 표면적인 몇 가지 이유를 비롯해 현대차의 숨은 전략이 담겨 있다.

현지 고급차 시장의 약진이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SUV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1대당 평균가격을 끌어올렸다. 2020년 기준, 현대차의 국내 승용과 RV의 평균판매가격(ASP)은 각각 4182만 원과 4177만 원이었다. 올해 1분기에는 승용과 RV의 ASP가 4690만 원과 4528만 원으로 올랐

다. 각각 12.1%와 8.4% 오른 규모다. 반면 이 기간 해외에서는 승용과 RV의 ASP가 각각 24.5%와 17.4% 급증했다. 상대적으로 고급차와 제품 다양화 전략이 주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장기적으로 내수 판매보다 북미 수출에 주력했다는 점도 현지 매출을 끌어올리는 배경이 됐다. 지난해 기준 현대차의 국내공장 가동률은 100.5%에 달했다. 철저한 방역지침을 바탕으로 161만2000대의 생산

능력을 지닌 울산·아산·전주공장에서 162만 대를 넘게 생산했다. 반면 미국공장 가동률(78.8%)은 80%에 채 미치지 못했다.

국내공장을 100% 넘게 가동하면서 미국 수출물량을 적극적으로 생산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자동차용 반도체 부족 사태가 본격화한 이후 내수 완성차 대기 수요가 폭증했다. 신차를 예약하고 인도받기까지 최장 12개월이 걸리기도 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현대차는 마진율이 높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큰 해외, 특히 북미 수출시장에 집중했다는 뜻이다.

환차익도 북미 매출의 역전의 배경으로 지목된다. 1분기 현대차는 글로벌 시장에서 매출 30조2986억 원, 영업이익 1조9289억 원을 기록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6%와 16.4% 증가한 어닝 서프라이즈였다.

이 기간 글로벌 판매(90만2945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7% 감소한 사실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이윤이 높은 수출시장에 주력하면서 달러 강세에 따른 환차익을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북미 매출이 안방이 국내 매출을 넘어서면서 현대차가 미국 현지에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전기차 전용공장 건설의 '당위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 관계자는 "국내 판매 차종은 100% 국내 생산분이지만 북미 판매 모델은 미국 생산 이외에 멕시코 생산 모델도 포함하고 있는 등 수익구조가 탄력적이다"며 "현지 산업 수요 증가와 환차익 등을 고려하면 당분간 현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 1분기 누적 실적 상위 10개 기업

회사명	업종	매출액(억원)	작년 대비 증가율
삼성전자	IT전기전자	77조7810	19.0%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	30조2990	10.6%
POSCO홀딩스	철강	21조3380	32.8%
한국가스공사	공기업	13조9790	81.3%
SK하이닉스	IT전기전자	12조1560	43.1%
GS칼텍스	석유화학	11조2890	75.6%
메리츠증권	증권	10조8240	123.7%
SK에너지	석유화학	10조3920	101.7%
포스코인터내셔널	상사	9조9120	39.9%
S-오일	석유화학	9조2870	73.8%

## 500대 기업, 1분기 매출 793兆 삼성전자 12.4兆 '부동의 1위'

19.6% 증가...사상 첫 700조 돌파 'IT전기·전자' 143조로 업종 선두 '석유화학' 41% 늘어 증가율 1위

국내 기업 순위 500위 내 주요 기업의 올 1분기 매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조 원에 육박했다.

17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국내 500개 대기업 중 올해 1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34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출 총액은 791조4797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61조9917억 원)보다 129조4880억 원(19.6%) 늘었다. 이들 기업의 분기 매출이 700조 원을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업종별로는 삼성전자가 포함된 IT 전기·전자가 143조3362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다. 석유화학(101조4110억 원), 자동차·부품(78조8655억 원), 보험(67조1869억 원), 증권(48조1918억 원), 공기업(45조3703억 원), 은행(42조7730억 원) 등과 비교해 압도적인 격차를 보였다.

매출 증감액의 경우 20개 업종 중 18개 업종에서 증가했다. 업종별로는 석유화학이 29조5612억 원(41.1%) 증가해 IT 전기·전자를 앞섰다. 2위인 IT 전기·전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조1383억 원

(18.3%)이 증가했다. 반면 조선·기계·설비(-6013억 원, 2.7% ↓), 통신(-2618억 원, 1.8% ↓)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했다.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총액은 62조2247억 원으로 지난해 1분기(59조1415억 원)보다 5.2%(3조832억 원) 증가했다.

업종별 영업이익의 규모로는 IT 전기·전자 업종이 21조2001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석유화학(8조6316억 원), 은행(5조4412억 원), 운송(4조8598억 원), 자동차·부품(4조3218억 원) 등 순이었다.

개별 기업별 매출로는 삼성전자(12조3930억 원, 19% ↑)가 부동의 1위를 지켰다.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 여파를 탄 한국가스공사(6조2681억 원, 81.3% ↑), 메리츠증권(5조9859억 원, 123.7% ↑), 포스코홀딩스(5조2693억 원, 32.8% ↑), SK에너지(5조2388억 원, 101.7% ↑)가 높게 나타났다.

영업이익도 삼성전자(4조7385억 원, 50.5% ↑)가 1위를 지켰다. 이어 HMM(2조1293억 원, 208.9% ↑), SK하이닉스(1조5352억 원, 115.9% ↑), SK에너지(9087억 원, 323.3% ↑), 포스코홀딩스(7052억 원, 45.4% ↑)가 강세를 보였다.

장효진 기자 js62@

KB금융그룹 | 국민의 평생 금융파트너 | 세상을 바꾸는 금융

### 어디든 떠날 그날을 위해, 마일리지 두둑하게 쌓아두세요!

**KB국민 스카이패스 티타늄 카드**  
 국내외 1천원당 1마일 기본적립  
 해외/면세점 1천원당 1마일 추가적립 (총 2마일)

• 연회비: 국내 해외겸용 4만 5천원 | 카드 신청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 발급이 부적절한 경우 개인신용평점 낮음, 연회비보유 등 카드발급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 금융소비자는 금소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해당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듣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여신금융협회의 상품별 제2022-C26-01293호(2022.02.25~2023.02.24)  
 • 연체이자율: 회원별/이용상품별 정상이자율 + 3%p, 최고 연 20% ※ 단, 연체발생시점에 정상이자율이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일시불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무이자할부 거래 연체 시: 거래발생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수수료를 적용 • 상환능력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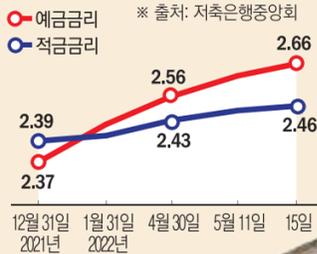
# 예금자는 '환호'

## 저축銀, 年 3.05% 예금 등장

저축은행 예금금리 톱5 (12개월 기준)

은행	상품	금리
키움저축은행	SB특독 회전정기예금	3.05
HB저축은행	e-회전정기예금	3.00
다울	e-회전정기예금	2.99
대한	정기예금	2.99
상상인	뱅뱅뱅 회전정기예금	2.86
OK저축은행	e-정기예금	2.85

저축은행 평균 정기 예·적금 금리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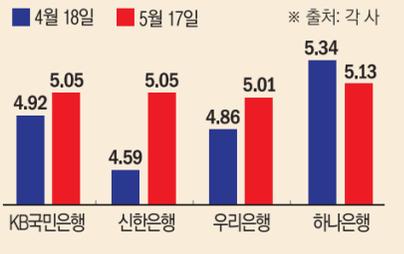
# 대출자는 '비명'

## 주담대 고정금리 7% 근접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 (단위: %)



4대 시중은행 변동형 주택담보대출 상단금리 (단위: %)



### 4년 만에 3%대... 코인 대신 돈 물려 적금 금리 역전 0.2%p 까지 벌어져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가(12개월) 연 3.0%를 넘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급락한 주식과 가상화폐 대신 저축은행 고금리 예금으로 뭉치돈이 물리고 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저축은행 정기예금 최고 금리가 연 3.0%를 넘었다. 2018년 이후 4년 만이다. 2019년 1월까지 연 2.8% 금리 상품을 내놓은 이후 줄곧 하향세를 보이다 지난해에는 2% 전후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12월까지 적금금리가 예금보다 높았으나 올 1월부터 예금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적금 금리를 역전했다.

키움YES저축은행 'SB특독 정기예금' 금리는 연 3.05%를 제공한다. 1000만 원을 복리로 맡기면 1년 뒤 이자로 26만1668원(세후)을 받을 수 있다. SBI저축은행도 전날 김아림 프로 'KLPGA 챔피언십 우승' 기념해 연 3.05% 정기예금 특판 시작했다. HB저축은행의 'e-회전정기예금' 예금 금리도 연 3.0%를 기록했다.

지난 12일 최고 금리가 최대 2.96%였는데 5일 만에 3.0%대를 넘어선 것이다. 현재 79개 저축은행의 평균 정기 예금금리는 연 2.66%로 지난해 12월 31일(2.37%)과 비교해 0.29%포인트(p) 올랐다.

대형 저축은행들도 예금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다. OK저축은행은 지난달 초에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0.10%p 인상한 데 이어 지난 2일, 주요 정기예금 상품 금리를 기존 대비 0.05%p 재차 올렸다. 주력 상품인 'OK e-정기예금'의 금리는 연 2.85%까지 올랐다. 상상인저축은행도 '뱅뱅뱅 회전정기예금'의 금리를 연 2.86%로 올렸다.

예금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 격차가 커지고 있다. 예금(2.66%)과 적금(2.46%)의 평균 금리는 0.2%p까지 벌어졌다.

통상 적금은 납입 금액이 비교적 적고 제한적이어서 예금보다 금리가 높다. 하지만, 최근 기준금리가 계속 오르고 시중은행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저축은행이 예금금리를 큰 폭으로 올리면서 예·적금 간 금리 역전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은행이 빅스텝 가능성까지 열어두면서 당분간 저축은행 수신금리도 추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예금 금리가 수직 상승하면서 저축은행 수신잔액도 빠르게 늘고 있다.

저축은행 총수신 잔액 이달 말 11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총수신 잔액은 지난 3월 말 기준 107조859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84조9943억 원)와 비교해 22조8652억 원 급증한 규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코픽스 1.84% 기록 35개월만에 최고 변동금리 최대 5.13% 가계부담 늘어

코로나19로 촉발된 유동성 잔치가 끝난 뒤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폭탄 청구서'가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그동안 싼 이자로 빚을 내 부동산·주식 투자를 하거나 대출로 생계를 유지하던 사람들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는 16일 지난달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4%로 전월 대비 0.12%포인트(p) 상승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큰 수준으로 2019년 5월(1.85%) 이후 2년 1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픽스가 시중은행의 주담대와 전세대출 등 주요 대출금리를 정하는 기준이어서 가계 대출 부담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변동형 주담대 상품 금리는 코픽스 상승분을 반영해 상단이 연 5%를 돌파했다. KB국민은행 금리가 3.55~5.05%, 우리은행은 4.01~5.01%로 나타났다.

금융채(6개월) 등을 반영해 금리를 내부 산정하는 신한은행과 하나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달 이미 상단이 5%를 넘었다. 두 은행의 변동형 주담대 금리는 각각 3.75~5.05%(신한은행), 3.836~5.136%(하나은행)이다.

이대로라면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6% 넘는 것은 시간문제다. 기준금리가 오르면 코픽스도 오를 수밖에 없다. 은행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수신금리를 올리면 결국 여신 자금 조달 비용 역시 늘어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지난달 14일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한 이후 은행들은 일제히 기준금리 인상 폭 이상으로 수신금리를 올렸다. 이달을 포함해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짓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전체회의가 5차례 남아 있어 추가 금리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변동형 금리가 올라가면 차주의 이자 부담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3월 기준 신규취급액 기준 고정금리 가계대출 비중은 19.5%에 불과했다. 80.5%의 소비자가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했다는 의미다.

주담대 고정금리는 7%에 근접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고정형(혼합형) 금리는 연 4.00~6.40%로 집계됐다.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지난 3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연 3.98%(신규취급액 기준)로 7년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2014년 5월(연 4.02%) 이후 7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당분간 대출 금리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지금 이 지갑 열 때... 낙폭과대·성장株 담고, 채권·美 배당주 노려라”

### 전문가가 말하는 '투자 피난처'

산업재·금융·에너지 들고 가야  
원자재·금융주·리츠 타이밍 늦어  
장기물, 금리 인상분 이미 반영  
채권시장 새로운 투자처 떠올라

30대 회사원 김모 씨는 지난달 예금과 국내 주식 8000만 원어치를 팔아 달러 정기예금에 3만 달러를 넣었다. 이어 미국 주식과 국채에 3만 달러를 투자하고 남은 1만 달러는 현찰 받아 개인 금고에 보관했다. 김 씨는 “지금 한국에 투자하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커 가급적 해외에 투자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시장의 안전자산 선호 현상은 경제 부진과 시장 불안에 지친 투자자들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풀이된다.

'베어마켓(약세장)' 진입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이투데이가 17일 국내 시장 전문가들에게 '투자 피난처'로 삼을 만한 곳이 어디지를 물었다. 전문가들은 주식 중에서는 낙폭이 과하게 나타난 성장주를 비롯한 배당주를, 주식 외에는 달러·채권 등을 피난처로 꼽았다.

### 투자 전문가들이 말하는 '투자 피난처'

장익성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지점장	김동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도곡센터 부장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PB팀장	송정근 신한금융투자 도곡센터 PB	백혜영 하나금융투자 분당WM센터 부지점장
채권	일부 기관 신종자본증권	성장주·지수 레버리지ETF	인플레이션 수혜주·미국 배당주	낙폭 과대주·미국 배당주
“금리인상 장기물에 대부분 반영”	“4%대 금리 수익 가능... 채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 구간”	“단기적 트레이딩 구간... 위험자산·성장주 매수 타이밍”	“인플레 시대에서 브랜드가치 높은 기업 찾아야”	“美 금리인상 시작· 中 봉쇄 해제 증시 변곡점...전략 바뀌어”

◇낙폭 과대주·성장주 담아야 정세호 한국투자증권 GWM센터 PB팀장은 “시장이 하락한다고 이제 와서 위험자산 비중을 줄이기보다는 오히려 위험자산을 매수할 수 있는 단계적으로 좋은 시점이라고 본다”며 “가장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성장섹터와 지수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등을 살펴봐야 한다. 성장주가 바닥을 찍은 건 아니지만, 기술적 반등이 초반에 나올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정 팀장은 “주식을 가져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산업재·금융·에너지섹터 등 가치채를 들고 가는 게 맞다고 본다”며 “지금은 주식을 파는 건 의미 없는, 실익이 없는 구간이라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백혜영 하나금융투자 분당WM센터 부

지점장은 “현재 모든 공포뉴스가 이미 나왔고, 미국 금리인상도 시작됐고, 중국 봉쇄도 해제하려고 한다. 변곡점이라서 전략을 바꿔야 한다”며 “지금은 오히려 낙폭 과대주 중에서 카카오와 같은 성장주 종목을 골라야 한다. 3개월 이상 투자자라면 전략적으로 성장주 가운데 반 토막 난 것들은 조금씩 담아야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美 배당주 안정적 전문가들은 작년 말 올해 초 투자 피난처로 꼽혔던 원자재·금융주·리츠는 보유자의 영역으로 지금 시점에서 진입하기엔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미국 배당주를 추천했다.

백혜영 부지점장은 “금융주는 방어장에서 1월부터 현재까지 시야하는 종목이었고, 원

재는 변동성이 너무 커져 있어서 진입보다는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달러가 약간 하락할 수도 있지만, 현재 고점을 찍은 것으로 보인다”며 “달러와 미국 배당주에 투자하라”라고 조언했다.

송정근 신한금융투자 도곡센터 PB는 “리츠는 주식의 성격을 띠고 있어 경기침체, 하락장이 오면 동반 하락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리츠보다 배당을 주는 기업에 집중하는 게 좋다”며 “국내 배당 투자를 매달 받기 어렵지만, 미국 배당주는 매달 받는 게 가능하다. 배당주를 통해 안정적인 흐름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했다.

◇각국 기준금리 인상·채권시장 새 투자처로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각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채권시장도 새로운 투자처로

올랐다. 장의성 미래에셋증권 반포WM 지점장은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릴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고 장기물은 이를 다 반영하고 있다”며 “미국 10년물은 2.9% 수준이고 한국도 3.2% 수준까지 올라가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3%나 3.5%까지 올리면 10년물 금리는 그 이상 못 올라간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장 지점장은 향후 금리는 1~2년 후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잡히면 기준금리는 떨어질 수 있고, 인플레이션이 안잡혀도 기준금리가 3% 넘게 올라가면 경기침체를 불러올 수 있어서 향후 금리는 낮출 수밖에 없다”며 “채권 투자하기에 좋은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동의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도곡센터 부장은 “최근 발행된 은행의 신종자본증권이 4%대 초중반에 나오고 있어 일부 기관 신종자본증권에 투자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국내 채권으로 4%대 금리 받기가 어려웠는데, 지금 투자해서 4%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채권 투자자들에게 매력적 구간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평가했다.

권태성 기자 tskwon@  
정희인 수습기자 hihello@

# 폐플라스틱 재활용 '규제 지뢰밭'... 법·제도 손질해야

지난 10일 취임한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심으로 한 '순환 경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사업을 주도하는 기업들이 수거·활용 관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미비한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가 취임 전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새 정부는 대량생산·폐기의 선형경제에서 폐기물 원천감량 및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순환경제 체계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 플라스틱 발생량을 2025년까지 20% 감축하고 2020년 0.9%에 그쳤던 열분해 비중을 2026년 10%로 늘린다. 이를 위해 매각·소각 중심이던 재활용 방식도 열분해로 전환할 예정이다.

석유화학업계는 이전까지 부족했던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환영의 목소리를 보내고 있다. 다만 현재 석유화학 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사업을 시행하며 겪는 당연한 어려움 해결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우선 폐플라스틱을 안정적으로 모으는 것부터 문제다. 그동안 국내 폐플라스틱 수거·선별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 중소·영세업체들이 담당해왔다. 그러나 SK지오센트릭, LG화학 등 대기업들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하자 기존 영세사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재 이와 관련 폐플라스틱 재활용을 중

## 대기업 진출 거센 반발

폐플라스틱 수거 영세업체 담당 업계 "핵심사업 수요 감당 어려워"

## 폐플라스틱 제한적 활용처

열분해유, 원유 대체·상업화 불가 폐기물법 '재활용 유형' 신설 필요

## 속도 내는 석화업계

SK지오센트릭, 리사이클 JV 출자 LG화학, 충남 열분해유 공장 건설

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반성장위원회 심의가 진행 중이다. 동반성장위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업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심의 과정을 거쳐 연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폐플라스틱을 수거하는 업체들이 중소기업이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아 대기업이 쉽게 진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규모로 수거하는 저품질 폐플라스틱으로는 열분해유 등 핵심 사업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폐플라스틱의 제한적인 활용처도 문제로 꼽혔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재활용 유



강원도 동해시 쌍용C&E 동해공장 순환자원 저장고에서 원유고 공장장이 순환자원 원료인 분쇄된 폐플라스틱을 한주먹 움켜 쥐었다.

형'에 대한 규제가 포지티브(최소허용규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원유·나프타 대체의 석유원료로는 사용할 수 없고 연료로만 사용할 수 있었다. 폐플라스틱과 열분해유를 모두 석유화학 정제 원료로 규정하지 않아 상업적 용도의 활용

도 불가능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해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수소연료로 재활용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게 재활용 유형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폐플라스틱 사업에 입법·정책적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에서도 투

자와 사업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내에서 폐플라스틱 사업을 가장 공격적으로 시작한 곳은 SK지오센트릭, LG화학, 롯데케미칼이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의 화학사업 자회사인 SK지오센트릭은 500억 원 규모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채권을 발행해 열분해유 후처리 설비 투자 및 폐플라스틱 리사이클 합작회사(JV)를 출자하기로 했다. SK지오센트릭과 퓨어사이클은 연내 한국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2024년까지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 설비를 구축한다.

LG화학은 플라스틱 화학적 재활용 사업 진출을 위해 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짓고 있다. 연내 착공이 목표이며 2024년 1분기까지 충남 당진에 '초임계 열분해유' 공장을 연산 2만 톤(t) 규모로 건설할 계획이다.

롯데케미칼도 울산 2공장에 1000억 원을 투자해 2024년까지 11만 규모의 화학적 재활용 페트 공장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재활용 플라스틱을 100만 이상을 판매할 예정이다.

이대순 기자 citizen@

## "중소-대기업 역할 분담·협업 열분해 설비 대규모화가 관건"

### 전문가 제언

"국내 기술력, 선진국의 80% 수준 연속식 공정 구축으로 수율 확대 폐플라스틱 처리 효율성 높여야"

폐플라스틱에서 뽑아내는 열분해유는 규모화가 관건이어서 열분해 시장이 '수익성 있는 시장'이 되도록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대기업들이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지만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다.

열분해 시장 규모가 커지고 안정적으로 활성화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시행착오를 거쳐야 한다. 우리나라는 열분해 기술 개발이나 투자 속도가 아직 선진국보다 많이 뒤쳐져 있다.

한국석유관리원 기술개발팀 담당연구원은 "선진국에 비해 국내 기술력은 현재 70~80%까지 따라온 수준이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연순환사회경제연구소 연구소장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기술력은 세계 최고 기술까지는 못 미치는 수준"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열분해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보기엔 어렵고, 특히 우리나라는 기술개발 투자나 속도의 관점으로 보면 현저히 뒤쳐져 있다"고 밝혔다.

홍 연구소장은 "영세한 기업들 수준에서 연구투자나 기술개발이 진행되다 보니 사업 개발 속도가 더디고, 이로 인해 대규모 기술로 구축되지 못해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하지만 최근에는 대기업 석유화학 업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데다 외국 기술을 들여오겠다는 움직임도 있어서 향후 발전 가능성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문가들은 열분해유는 '수율'이 핵심

이라며 '연속식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얼마만큼의 폐플라스틱으로 어느 정도의 기름을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얘기다. 석유관리원 연구원은 "열분해 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지금의 배치식의 형태를 빼고 연속식 공정으로 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연구소장은 "가장 먼저 효율성의 문제인데, 얼마만큼 많은 폐플라스틱을 처리할 수 있느냐 중요하다"며 "지금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연속식 자동화시스템이 구축돼야 대규모 설비로 처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문제로는 기존 시장을 잡고 있던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다. 대기업들의 등장으로 기존 시장을 잡고 있던 중소·영세기업들의 먹거리가 줄어들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소 기업 간에 갈등이 생겨난다면 폐플라스틱 재활용 사업 개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홍 연구소장은 "열분해 설비는 기본적으로 규모화가 필요하고, 설비투자가 꾸준히 이뤄져야 하는데, 기존 영세한 기업들의 대응만으로 우리나라 기술 발전이 따라가기에는 힘든 점이 있다"며 "대기업들이 시장 진입하는 데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중소기업의 역할을 분담해서 협업 방식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호 고등기술연구원 박사는 "현재 대기업들이 사업에 뛰어들고 또 추구하는 시장은 만든 기름을 케미칼 원료로 사용하는 것인데 관건은 기름을 만드는 공정을 대기업이 다하게 된다면 당연히 중소기업들의 설 자리는 없게 될 것"이라며 "일례로 15년 전에 바이오디젤이 만들어질 때 중소기업 제조사들이 꽤 있었는데, 결국 대형 정유사들이 작은 기업들을 다 사버렸고, 현재는 중소제조사들이 아예 없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지적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우리가족 모두 마그네슘 충전!

부모님께

선생님께

부부사이에도

모델 이 동 국

이 동 국

**마그네슘 결핍으로 인한**

**근육경련 | 육체피로 | 체력저하**

액상으로 빠르게 흡수되는 마시는 마그네슘

# 마그비스피드

글리세로인산마그네슘 1200mg 함유 (마그네슘으로서 150mg)

마그비 연질캡슐도 있습니다.

광고심의필 : 2022-1622-003601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 한덕수 총리 인준안 ‘빨간불’…여야, 여론 살피며 득실 계산

### 尹,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강행 민주, 정부 ‘발목잡기 여론’ 경계 일각 “총리 인준 해줘야” 의견도 국힘, 지방선거 영향 미미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에 진통이 예상되는 등 정국 경색이 불가피해졌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측은 한 장관 인사 청문회에서 별다른 결격사유가 드러나지 않은 만큼 임명은 당연한 수순이라는 입장이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1주일이지났음에도 내각이 제대로 구성되지 못한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지 하루만에 이를 뒤집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여야는 6.1 지방선거에 미칠 득실 계산에도 분주하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인사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큰 손해는 아니라는 분위기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협치 약속을 어겼다’는 명분은 얻었지만 ‘새 정부 발목잡기’라는 역풍이 불가 경계하는 모습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여권은 한동훈 장관의 임명으로 한 총리 인준안이 부결되는 상황을 최악의 시나리오로 보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준안이 부결되고 여야대립이 격화되더라도 지방선

거에는 별다른 악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히려 민주당을 ‘발목잡기’ 프레임에 묶어둘 수 있어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계산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한동훈 장관 인사청문회가 무기력하다 못해 빈축의 대상이 된 만큼 민주당이 한 장관 임명을 이유로 한덕수 후보자를 낙마시킬 경우 ‘몽니’라는 여론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누구를 임명하기 위해 누구를 희생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구태정치적 전형”이라면서 “대통령이 1호 안건으로 사인해서 국회로 보낸 지 일주일도 지나도록 본회의 일정을 잡겠다는 이야기 자체가 전혀 없다.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부정적으로 판정된 한동훈 장

관 임명으로 일단 반격의 명분을 얻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오영환 대변인은 한 장관에 대해 ‘해임 건의안’을 거론하며 “당연히 당 차원에서 국민 의견을 대변해 그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놔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윤 대통령을 향해 ‘반지성주의’라고 표현하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며 국회와 논의하겠다고 했는데 하루만에 인사 강행하는 게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존중과 협치의 실체를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런 기류 속에 16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발목잡기 프레임이 계속된다면 6

월 지방선거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향후 정국대응 방향잡기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총리 공백이 길어지면 정부 업무가 시행령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만큼 입법부가 횡방꾼으로 비칠 우려가 있어서다. 이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선 한 총리 후보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 기회는 줘야 한다는 기류도 형성되고 있다.

양기대 의원은 17일 YTN라디오에 출연해 “내부에서 (총리 인준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부적격이건 적격이건 빨리 정리를 해서 정권 초기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자 그런 의견들을 나는 적은 있다”면서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일환 기자 whan@

## 국힘, 서울·인천·충청·강원 강세...경기는 초박빙

### 지방선거 D-14 판세

#### 서울 오세훈 > 송영길 25%P 앞서 경기 김은혜·김동연 오차 내 접전 민주, 텃밭 호남서만 지지율 우세

6·1 지방선거가 약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지역별 판세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과 인천, 충청, 강원, 영남 등에서는 국민의힘 후보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 비해 우세를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전통적인 지지기반인 호남에서 강세를 나타냈다. 반면 경기도는 박빙 양상을 보여 최대 격전지다운 면모를 보였다.

우선 리서치앤리서치가 동아일보 의뢰로 지난 14~15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서울시장 후보 지지율은 국민의힘 후보인 오세훈 현 시장이 52.4%, 송영길 민

주당 후보가 27.2%를 얻었다. 격차는 오차범위 밖인 25.2%포인트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는 응답(17.0%)보다도 컸다.

경기지사 선거는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37.2%, 김동연 민주당 후보가 34.7%를 기록했다. 격차는 2.5%포인트로 오차범위 내 접전이었다. 인천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 39.6%, 박남춘 민주당 후보는 32.5%를 기록했다. 격차는 7.1%포인트로 오차범위 밖이었다.

KBS·MBC·SBS 등 지상파 3사 공동 의뢰로 3개 여론조사 기관이 지난 14~15일 실시한 광역단체장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오 후보는 49.1%, 송 후보는 29.5%를 각각 기록했다. 정의당 권승정 후보는 0.9%였다. 인천시장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유정복 후보 37.5%, 박남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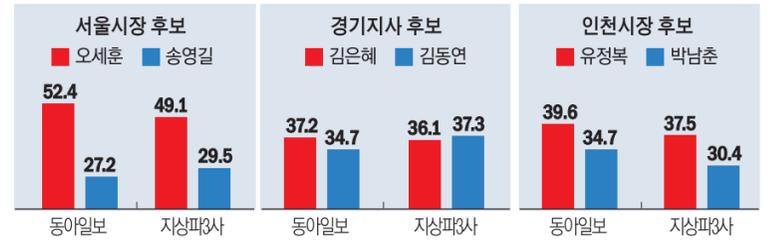
후보 30.4%였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는 3.6%였다. 경기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37.3%, 김은혜 후보가 36.1%로 초접전 양상을 보였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 지지율은 2.9%였다.

충청권과 강원 지역은 국민의힘 후보들이 우세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4~15일 대전·충남·충북·강원 유권자 32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전시장 후보 지지도는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 45.8%, 허태정 민주당 후보 41.2%였다.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44.1%, 양승조 민주당 후보 41.7%로 나타났다.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는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 49.5%, 노영민 민주당 후보 34.1%로 김 후보가 두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강원지사 후보는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 48.2%, 이광재 민주당 후보 41.7%였다.

### 광역단체장 후보 지지율

(단위: %, 14~15일 조사)

※ 동아일보 의뢰 리서치앤리서치 조사, 오차 ±3.4~3.5%P  
※ 지상파 3사 공동 의뢰로 3개 여론조사 기관 조사, 오차 ±3.1~3.5%P



방송 3사 조사에서는 충북지사의 경우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가 42.8%로 민주당 노영민 후보(27.8%)를 역시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충남지사 후보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흠후보(40.5%)와 민주당 양승조 후보(34.3%)였다. 강원도지사는 김진태 후보가 45.1%로 이광재 후보(33.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동아일보 조사는 서울, 경기, 인천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각각 803명, 809명,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서울과 인천은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 경기도는 95% 신뢰수준에서

±3.4%포인트다. 조선일보 조사는 통신 3사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100% 사용한 전화 면접원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지역별 표본은 대전 800명, 충남 800명, 충북 802명, 강원 806명 등이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포인트였다. 지상파3사 여론조사는 무선 전화면접조사(가상번호 100%)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3.5%포인트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정일환 기자 whan@

<대통령실 비서관>

## 윤재순 “생일빵 맞고 뽀뽀해 달라고 해 경고받아”

### 국회 운영위서 성비위 논란 사과 김대기 “부적절했으나 처분 적당”

김대기 대통령실장은 17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재순 총무비서관의 과거 성비위 문제로 진담을 흘렸다. 당사자인 윤 비서관은 고개를 숙였다.

윤 비서관은 “지난 부분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국민에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꼈다면 당연히 제가 사과드려야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20년 전 일이고 조사를 받은 적도 없고 사실관계가 안 맞는 점도 있으나 구차하게 변명하고 싶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러브샷을 하려면

웃을 벗고 오라’ ‘속웃은 입과 다니냐’라는 윤 비서관의 과거 발언을 언급하며 경고 처분이 적절했다고 보는 질의에 김 실장이 나서 “말 자체는 부적절하다”면서도 “(경고 처분은) 적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에 고 의원이 지난해 경찰에서 여경을 상대로 ‘음란하게 생겼다’고 발언한 경찰관들에 대해 5명이 해임·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점을 예로 들면서 “윤 비서관 경고 처분이 적당하다고 보나”라고 거듭 따졌고, 김 실장은 답변을 피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탁현민 비서관이 성비위 논란으로 사퇴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사실관계를 숨기지 말고 제대로 사과해야 한다”

고 말했다.

그러자 윤 비서관은 “생일에 격려금을 받아 10여명 직원들에게 소위 말하는 ‘생일빵’을 처음 당해봤다. 하얀 와이셔츠에 초코케이크 범벅이 되자 뭘 해줄까 하고 물어서 화가 나 뽀뽀를 해달라 해 (피해 여직원이) 불에다 뽀뽀를 하고 갔던 것”이라며 “당시에 조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뒤에서 1년 동안 조사되는 줄도 모르다가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고 전보조치 됐다. 조사 내용은 제가 읽어보지도 않고 파쇄기에 갈아버리고 잠자코 있었다”고 설명했다.

윤 비서관의 발언에 천준호 민주당 의원이 김 실장에게 “도덕불감증”이라 비판했다. 김윤호 기자 uknow@



UAE 대통령 ‘韓과 관계 중요’...방한 요청에 화답 장제원(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대통령 특사가 16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알 무수리그 공에서 열린 할리파 대통령 조문 행사에 참석해 유족인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신임 UAE 대통령에게 조의를 표하고 있다. 장 특사는 무함마드 대통령에게 윤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고 한국 방문을 요청했다. 무함마드 대통령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UAE에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조만간 방한해 윤 대통령과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연합뉴스

## 주미대사 조태용, 질병청장 백경란, 금융위 부위원장 김소영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첫 주미대사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을 임명했다. 질병관리청장에는 백경란 성균관대 교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엔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를 발탁했다.

주미대사로 내정된 조 의원은 비례대표 초선 의원으로 정치 경력은 짧지만, ‘미국통’ 외교관 출신으로 북핵 6자회담 수석대

표와 외교부 1차관,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역임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한미 정책협의대표단에 참여했다.

코로나19 방역 지휘봉을 넘겨받은 윤석열 정부 초대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과장으로 근무했고 제30대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감염병 전문가다. 인수위에서는 사회복

지문화분과 인수위원으로 참여해 새 정부 방역 체계 설계에 참여했다.

윤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렸던 김 부위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미국 예일대에서 경제학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전공은 화폐금융 및 국제금융이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컨설턴트, 국



조태용 백경란 김소영  
제계은행(BIS) 컨설턴트, 홍콩중앙은행연구소 연구위원을 지냈다.  
김 부위원장은 인수위에서 경제1분과 인수위원으로 새 정부 경제정책 전반의 밑그림을 그리는 데 일조했다.

금융위원장 지명이 늦어지는 가운데 부위원장 인선부터 이뤄진 건 고승범 위원장이 일찌감치 사의를 표하면서 당장 금융위 키를 잡을 이가 필요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임명 발표 직후 문자 메시지를 통해 “국내외 금융리스크가 확대돼 경제와 금융의 전반적인 상황이 어려운 중추적인 시기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취임하게 됐다”며 “무엇보다 비상한 각오로 소임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윤호 기자 uknow@



Hi Green  
 Hi Innovation  
 Hi Growth  
 Hi Flex

SAFER, FASTER, LONGER  
 than Ever

배터리로 지구 살리는 SK온과 함께  
**그린으로 플렉스**

# “석달 새 세수 수십兆 증가?... 기재부 세입 내역 공개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에 관한 답변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1월, 과소 추계 예측 가능”  
나라살림 “기재부 무능 증명”

野 “기재부 자격 없어 해체해야”  
추경호 “걱정 끼쳐... 개선할 것”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59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재원 대부분을 올해 53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로 메울 수 있다고 한 것은 기재부의 무능을 여실히 증명한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존 예측에서 세수를 과소 추계해온 기재부가 상당한 규모의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세입예산을 수정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해 사상 최대 규모의 세수 오차를 낸 바 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7일 K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최강시사’에 출연해 “기재부가 작년 61조 원의 세수가 더 걸리고, 올해에는 50조 원이 넘는 세수가 더 들어올 것이라고 한 것은 무능함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2022년도 본예산에서 올해 국세 수입이 작년보다 1조 원 줄어든 343조 원으로 과소 추계를 했는데 수 십조 원이 넘는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재정당국이 제대로 일을 안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기재부의 세수 오류는 지난해부터 있었다. 지난해에만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해 세수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치보다 61조4000억 원 늘어났다. 기재부의 세수 예측은 2년 연속으로 50조 원 넘게 빚나간 것이다. 이를 두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심기가 불편하다. 올해 2월 1차 추경을 편성할 때 기재부가 세수가 별로 없다고 해 국회발행(11조 원) 등으로 15조 원을 편성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국가채무를 늘리지 않고 초과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려는 기재부의 이중성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 수석연구위원은 기재부가 큰 규모의 초과 세수가 들어오는 것은 예측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년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은 6.9%이며 올해 경상성장률이 6%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전년보다 올해 세수가 더 걸리는 구조일 수밖에 없다”

면서 “특히 본예산이 너무 과소추계 됐다는 것은 작년 11월 말 세입세출 결산 직후에는 예측 가능했다”고 말했다. 올해 53조 원이 넘는 초과 세수가 가능하다는 질문에는 “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누구도 모른다. 왜냐면 기재부가 세출과 달리 세입을 예측할 수 내역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추정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가 세입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국가재정법 위반이다. 국가재정법은 1일 세입 및 세출 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재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세출처럼 세입 내역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측은 “세수 추계도 할 줄 모르는 기재부는 재정 당국의 기본 자격도 없는 것”이라며 “해체하고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사실은 그 정도 오차가 있는 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국민께 걱정을 끼쳐드린 부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개선을 약속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이투데이 기자 nancho0907@

## 공공기관장 업무추진비 평균 1200만원... 도로교통공 4190만원 최고

직원 화환·경조·식사비 주로 써  
코로나 이후 작년까지 250만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공공기관장이 사용한 업무추진비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공공기관 366곳의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는 평균 1202만 원으로 전년보다 9.1% 줄었다. 전체 공공기관 기관장의 1인당 평균 업

추진비는 2017년 1343만 원에서 2018년 1353만 원, 2019년 1453만 원으로 늘었다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2020년 1323만 원, 지난해 1202만 원으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직원 및 유관기관 직원을 위한 경조 화환, 경조금, 식사비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가장 많은 곳은 4190만 원인 도로교통공단으로 전년 대비 20.9%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기관장은 서울경찰청장을 지낸 이주민 이사장이

로 지난해 2월 취임했다. 이어 농업정책보협금융원(3833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3801만 원), 대한법률구조공단(3389만 원), 환경보전협회(3364만 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3237만 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3212만 원), 한국국제협력단(3199만 원), 한국과학기술원(3071만 원), 한국국제교류재단(3016만 원) 순이었다. 상당수 공공기관이 코로나19에 따른 대외 활동 위축 등으로 업무추진비가 줄었지만 28.7%인 105곳은 2년 전보다 오히려 업

추진비가 늘었고 2곳은 같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는 2019년 1124만 원에서 지난해 3389만 원으로 2265만 원(201.6%) 늘어 증가액이 가장 컸다. 이어 농업정책보협금융원이 1946만 원에서 3833만 원으로 1887만 원(96.9%),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778만 원에서 2164만 원으로 1386만 원(178.2%), 독립기념관이 693만 원에서 1915만 원으로 1221만 원(176.2%) 각각 증가했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 ‘역대 2위 실적’ 가스공사 선박 연료 신사업 박차

최근 발전용 LNG 가격 상승 등으로 역대 2위의 분기 실적을 낸 한국가스공사가 LNG를 기반으로 한 신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신사업 추진은 지난해 9월 KOGAS 2021 A New Era에서 선포한 새로운 장기경영계획 비전 2030의 일환이다. 천연가스 도매공급자를 넘어 탈 석탄, 석유 생태계 조성을 주도할 에너지 전환 선도기업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이다. 가스공사는 네 가지 LNG 기반 신사업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 기준 약 2조 2000억 원의 매출액과 3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연료전환을 통해 약 200만tGHG의 탄소 저감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네 가지 LNG 기반 신사업에 약 5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 기준 약 2조 2000억 원의 매출액과 33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 연료전환을 통해 약 200만tGHG의 탄소 저감도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가스공사는 최근 발전용 LNG 가격 상승으로 역대 2위의 실적을 냈다. 1분기 9126억 원의 흑자는 2018년 1분기에 이후 최고치다. 이에 LNG 가스를 활용한 신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먼저 가스공사는 해상 대기 질 개선을 위해 LNG 병커링을 추진할 방침이다. 선박에 친환경 연료인 LNG를 공급하는 것이다. 기존 선박용 연료보다 분진 배출은 100%, 이산화탄소 배출은 20%, 미세먼지는 99%까지 줄일 수 있다. LNG 병커링 사업은 LNG 병커링선을 이용해 LNG 추진 선박이 해상에서 직접 LNG를 공급받는 STS(Ship to Ship) 방식이다.

수소와 LNG 차량의 동시 충전이 가능한 융복합 충전소 구축 사업도 추진한다. 수소 버스나 수소 트럭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방식이라는 게 가스공사의 설명이다. 현대로템 등 5개 업체와 융복합 수소 충전소 구축·운영 합작법인 하이스테이션(가칭) 설립을 위한 주주협약을 통해 6개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만들 계획이다. LNG 조달부터 전력공급까지 한 번에 해외로 보내는 서비스인 GTP(Gas to Power)도 진행 중이다. 미활용 에너지인 LNG 냉열도 활용해 콜드체인 클러스터 사업도 추진한다. 세종=박준상 기자 jooon@

## 손경식 “처벌 중심 중대재해법 우려” 이정식 “예방 중심으로”...개선 시사

경총 회장·고용부 장관 면담  
경영계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고용유연성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 개선을 촉구했다. 이 장관은 경영계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도 요구 사항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이 장관은 17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을 방문해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손 회장은 경영계를 대표해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노동정책들의 전반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노동개혁을 위해 여러 중요한 과제가 있으며 고용유연성, 근로시간, 산업재해 문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특히 우리 노동법은 과거 노동계가 힘의 약자인 시절 만들어져 노동계와 근로자에 대한 보호 위주로 만들어졌으나, 오늘날은 오히려 힘의 역전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법 개선과 별개로 산업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공권력 집행을 촉구했다. 특히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처벌법

으로 인해 기업들의 우려가 크다”며 “산업재해 문제는 예방 중심으로 가야 하는데, 처벌 중심으로 가면 기업들의 예방과 교육을 위한 노력에 도움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경영계의 어려움과 개선 요구는 잘 알고 있다”면서도 “노사관계 문제는 노사 간 견해차가 커서 지난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는 “산업과 경제 변화에 따라 노동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나 제도 외식 관행의 현실적합성과 상호정합성이 필요하다”며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노사 파트너십과 신뢰가 매우 중요하다. 제도 개선 역시 노사 간 상호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개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장관은 “정부는 노사를 막론하고 산업현장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은 예방과 지원을 중심으로 두고 산업재해가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에 주력하고자 한다. 기업들도 산재 예방에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외국인 한식 일일 체험  
농림축산식품부와 한식진흥원이 11월까지 ‘외국인 한식 일일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작년에는 전국 6개 지역 김치를 주제로 외국인 240여 명이 참여했다. 지난해 외국인 한식 일일체험 행사 모습. 사진제공 농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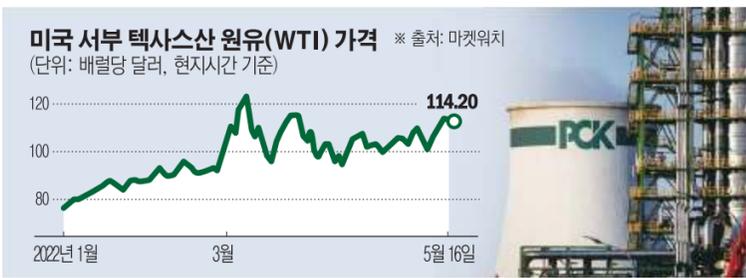
## 오미크론보다 전파 빠른 ‘변이’ 국내도 검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이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새 변이 유입 위험은 커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오미크론(BA.1) 하위 변이인 ‘BA.4(1건)’과 ‘BA.5(2건)’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중심으로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BA.4’와 ‘BA.5’는 포르투갈에서 스텔스 오미크론(BA.2) 대비 검출 증가 속도가 13% 빠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박영준 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이날 브

리핑에서 “바이러스 표면에 있는 스파이크 부위에 특정 변이가 있어서 면역 회피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하고 있다”며 “유럽에서는 포르투갈 사례를 바탕으로 5월 또는 6월 초 우세종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서는 아직 사례가 많지 않아서 평가는 제한적이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것으로 봤을 때는 기존 변이와 비교해 전파력에 있어서 이상징후가 아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 좁고 배고프니 결속 약해지는 EU... 대러제재 '사분오열'

원유 수출금지·루블 사용금지안 만장일치 필요한데 헝가리 반대 기업들도 루블화 계좌 개설 허용



러시아 원유 수출을 금지하려는 유럽연합(EU)의 계획이 에너지 대란에 물거품 될 위기에 놓였다. EU는 우선 대러 규제 방침 일부를 수정해 개별 기업들이 러시아 원유 구매 시 루블로 결제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16일(현지시간)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는 EU 외무장관 회의 후 "이날 제재 패키지에 대해 논의하길 원했지만, 정치적 수준에서 해결하기엔 너무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헝가리가 새로운 기반 시설을 찾고 러시아 석유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선

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헝가리는 만장일치가 필요한 대러 금수 조치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는 금수 조치가 자국에 미칠 경제적 파급력을 '핵폭탄'에 비유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다른 관계자들도 "현지점에서 더는 확신이 서질 않는다"고 밝히는 등 최종 합의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EU는 러시아와의 대립각을 일부 줄이면서 기업들의 러시아 원유 구매를 허용했다.

EU는 러시아 원유 수입에 대한 개정된 지침을 회원국에 전달했는데, 바뀐 지침에는 "기업이 천연가스 공급 계약서에 명시된 통화로 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지정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러시아는 외국 기업들이 자국 국영

가스회사인 가스프롬에 대금을 결제하기 위해 먼저 자국 은행 가스프롬뱅크에 루블 계좌를 개설하고 달러나 유로를 루블로 환전해 결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기업이 달러·유로를 지급하는 제1 계좌와 가스프롬뱅크가 루블을 내어주는 제2 계좌가 필요한데, EU는 제1 계좌의 개설을 허용한 것이다.

다만 제2 계좌는 사실상 가스프롬뱅크가 가스프롬에 송금하기 위한 목적인 만큼 EU가 제1 계좌 신설을 허용함으로써 기업들의 러시아산 원유와 천연가스 구매도 숨통을 트게 됐다. 블룸버그도 "바뀐 지침은 가스프롬뱅크 계좌 개설을 막지 않아 기업의 가스 구매를 허용할 것"이라며 "기업들은 가스 공급을 유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당장 이탈리아 에너지 대기업인 에니스파는 18일까지 루블 계좌를 개설해 이달 대금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13일 기준 일주일간 미 전력비축용 재고는 전주 대비 500만 배럴 감소한 5억3800만 배럴로 집계됐다. 1987년 이후 최저치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축용을 대거 방출한 탓이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유가는 상승세다. 이날 미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전 거래일 대비 3.4% 상승한 배럴당 114.20달러에 마감했다.

유가를 잡지 못한 가운데 비축유까지 줄면서 수급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랍에미리트(UAE) 최대 은행인 NBD의 에드 벨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장기적으로 미국이 어려움이 더 많은 원유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생각해보면 비축유 방출은 다소 위험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고대명 기자 kodae0@

## '인수가 깎자' 흠 잡는 머스크 '엎자는 건가' 발끈한 트위터

"스팸계정 많다" 인수 잠정중단에 "제거과정 공개 안 한 것뿐" 반박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위터 인수 포기 불을 지피는 것 아니냐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 머스크는 인수가를 낮춰 재협상할 의사를 내비쳤다.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머스크는 이날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린 팟캐스트 '올인' 주최 콘퍼런스에 참석해 트위터 인수가격 조정과 관련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이어 "추산 결과 트위터의 가짜 계정과 스팸봇 비중이 최소 20%에 달한다"며 "이건 추정치 하한선에 불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00개의 임의 계정을 샘플링 해 자체 테스트했다 이 같은 추산이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현재 내가 (트위터로부터) 듣고 있는 말은 스팸봇의 개수를 알 방법이 없다는 것뿐"이라면서 "마치 인간의 영혼처럼 알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앞서 머스크는 13일 자신의 트위터 계정

을 통해 올해 1분기 트위터의 허위계정·스팸봇(스팸 발송용 자동 프로그램 계정) 등 가짜 계정 비율이 5% 이하라는 걸 증명하라고 트위터에 요구하면서 인수 절차를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머스크의 이날 발언에 파라그 아그리왈 트위터 CEO가 즉각 반격에 나섰다. 그는 "랜덤으로 추출된 수천 개의 계정을 여러 사람의 검토를 거치는 방식으로 스팸봇을 제거한다"며 "하루에 50여만 개의 스팸 계정을 없애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 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제거 과정을 외부에 공개할 수는 없었지만 외부에서 빛의 비율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주장했다. 아그리왈 CEO의 입장 발표에 머스크는 댓글로 웃는 똥 모양의 이모티콘을 달아 조롱했다.

시장에서는 머스크 CEO가 가짜 계정 추산 방식 등으로 거래 조건을 흠잡으며 인수를 지연시키는 것 역시 주가를 떨어뜨려 인수를 재협상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트위터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7.9% 하락한 37.51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러, 82일 만에 마리우폴 완전 점령  
우크라이나 남부 마리우폴의 최후 항전지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최후 항전을 벌이던 우크라이나군 부상병 한 명이 16일(현지시간) 친러 반군이 장악한 노보아조우스크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은 260명 이상의 병사들이 제철소에서 대피해 전투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에 러시아는 침공 82일 만에 마리우폴을 완전히 점령하게 됐다. 영국 가디언은 이번 전쟁에서 가장 길고 피로 얼룩진 전투가 우크라이나인에게 아조우스탈 제철소는 저항의 상징이 됐다고 평가했다. 노보아조우스크/로이터연합뉴스

## 식용유 떨어진 영 '피시앤드칩스' 줄폐업 위기

우크라-러시아산 수입 끊기며 난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용유와 생선 가격이 급등해 영국 대표 음식인 피시앤드칩스 가게들도 대거 폐업 위기에 몰렸다.

1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영국 전국생선튀김협회(NFFF)는 앞으로 9개월 안에 영국의 1만여 피시앤드칩스 매장 중 3분의 1이 문을 닫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NFFF는 이들 매장 중 1200여 곳을 대표하는 협회로 100년 넘게 이어져 온 단체다.

피시앤드칩스 매장에서 필요로 하는 주요 식재료인 해바라기유와 흰살생선은 각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해당 식자재 가격이 크게 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위축에 연이은 타격이다.

NFFF에 따르면 업계에서 주로 사용하는 생선인 대구와 해덕대구 약 40%가 러시아산이다. 대안인 아이슬란드와 노르웨이산 생선 가격도 이미 크게 올랐다. 영

국이 제재로 러시아산 흰살생선에 수입 관세를 높게 부과하면서 재고를 비축하려던 업계의 수요가 늘어 가격을 끌어올렸다.

지난해 이맘때쯤 아이슬란드산 대구 한 상자 가격이 140파운드(약 22만 원)였는데 올해는 270파운드로 올랐다.

해바라기유 상황도 비슷하다. 피시앤드칩스 업계에서 수입하는 해바라기유의 절반 이상이 우크라이나산이다. 크록 회장은 "대부분 업체가 3월 초에 비해 83% 정도 오른 가격에 해바라기유를 수입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대안인 팜유도 가격이 두 배로 오른 상황이다. 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국내 공급 안정을 위해 4월부터 수출을 제한하면서 가격이 뛰었다.

피시앤드칩스는 영국을 대표하는 음식으로 1860년대 처음 등장한 이래 노동자들의 한 끼 식사로 사랑을 받아왔다. 2차 세계대전 중에도 홍차, 버터, 고기와 함께 정부가 공급하는 필수 식품이었다.

정영민 수습기자 oin@

## "파티 끝났다" vs "바닥 쳤다"... 혼돈의 기술株

글로벌 금융시장이 인플레이션과 경기둔화 우려 전망에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민감한 기술주가 직격탄을 맞았다. '나스닥 고래'였던 헤지펀드마저 기술주를 손절하면서 추가 하락에 불을 지폈다. 반면 중국 기술주가 지난 1년간의 '암흑기'를 마치고 반등을 준비 중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마감했지만, S&P500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0.39%, 1.20% 하락했다. S&P는 최근 고점 대비 16% 빠졌다. 나스닥은 올해 들어 25%나 폭락해 이미 약세장에 진입한 상태.

연준발(發) 긴축과 경기침체 공포, 2분기 실적 부진 전망, 인플레이션 장기화 등 각종 악재에 투자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시장 심리를 나타내는 7가지 지표인 CNN의 '공포와 탐욕지수'는 지난주부터 '극단적 공포'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지머니' 시대의 최대 수혜주였던

나스닥 올 25%↓ 약세장 진입 CNN "극심한 공포 구간 돌입" 중기술주 시장에는 긍정적 평가



기술주가 폭락하자 큰손들도 '손절'에 나섰다. 기술주 투자펀드의 상징인 타이거글로벌은 올 1분기 보유 기술주를 대거 팔아치웠다. 미국 온라인 데이팅 플랫폼 범블, 공유 숙박업체 에어비앤비, 중국 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디디주식을 전량 매도했다. 온라인 주식거래 플랫폼 업체 로빈후드의 지분을 80%가량 처분했고,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인 넷플릭스와 전기차 제조업체 리비안 주식도 일부 팔았다.

타이거글로벌은 기술주 폭락으로 총 보유 주식 가치가 지난해 말 460억 달러(약 59조 원)에서 올해 1분기 말 260억 달러로 반 토막 났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타이거글로벌의 기술주 손절은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평가했다.

기술주 하락세 여파는 스타트업 시장에도 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피치북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의 스타트업 투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사상 최대치인 950억 달러를 기록했으나 올해 1분기 들어 전분기 대비 26% 감소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기술 스타트업 투자가 신중해지고 있다"며 "파티는 끝났다"고 전했다.

한편 중국 기술주 시장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다. 글로벌 투자사 JP모건 체이스는 텐센트, 알리바바, 메이탄 등 중국 대표 기술기업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로 상향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 부동산 경기침체 여파로 현지 기술기업에 '투자불가' 딱지를 붙인 지 두 달 만이다. JP모건은 중국 정부가 기술 부문 단속을 완화하기로 한 점을 꼽으며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 은행끼리 **합치고** 줄이고 손잡고...은행도 '하이브리드'가 대세

시중 은행들이 비대면 거래의 증가와 오프라인 영업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은행 지점 수를 지속해서 줄여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4대 은행 기준으로 석 달 동안 벌써 문 닫은 지점만 89곳에 달한다.

대신 은행들은 무인점포와 하이브리드 점포 등을 새로 열고,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등 소비자 마음 사로잡기에 나섰다.

17일 KB국민·신한·우리·하나은행이 발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이들 4대 은행의 국내 점포 수는 3030개로 집계됐다. 작년 말 3119개에서 1분기 새 89개 줄었다. 작년 1분기(3275개)와 비교하면 1년 새 245개가 문을 닫았다.

금융의 디지털·비대면화가 진행되면서 은행 점포 축소는 수년 전부터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됐다. 모바일과 인터넷 뱅킹 발달로 고객이 영업점을 직접 찾는 경우가 급감하면서 은행으로서의 비용이 많이 드는 점포를 유지할 이유가 사라진 게 주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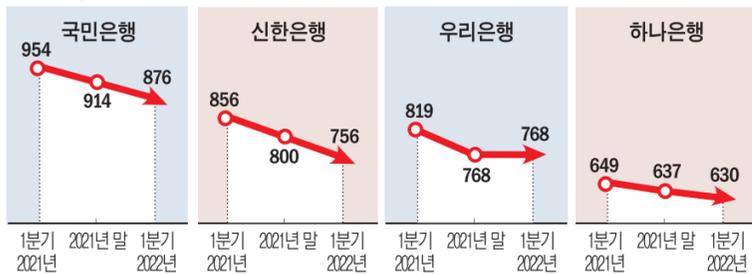
## 4대 은행 비대면·디지털화 1분기만 89개 지점 문닫아

### 은행 공동점포·무인점포 등 시니어·금융소외계층 위해 맞춤 대안점포 개설 움직임

이유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거래가 급성장하면서 지점 축소 움직임이 더 빨라졌다. 은행들은 기존 점포를 줄이면서도 점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점포', 유통업체 등 다른 업권과 손잡은 '하이브리드 점포' 등 이색 점포를 새롭게 열고 있다.

지난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은 경기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은행권 최초 공동점

4대 은행 점포수 (단위: 개)



포를 개점했다. 두 은행은 작년 폐점된 우리은행 신봉지점 내 50여 평 규모의 영업 공간을 절반씩 사용한다. KB국민은행과 신한은행도 경기 양주시 등에 공동점포를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초소형 점포도 탄생했다. 우리은행이 지난 3월 개설한 디지털 익스플레시점이다. 디지털 데스크, 스마트 키오스크, 현금자동 인출기(ATM) 등 디지털기기 3종으로 구성된 무인점포다. 디지털 익스플레시점은

디지털기기 기반 무인 체널이지만, 지역 특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해 점포 폐쇄 지역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편의점 등을 활용해 영업점을 운영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최근 하나은행은 편의점 CU 운영사 BGF리테일이 금융 특화 편의점 2호점을 열었다. 이 점포는 기획부터 금융 융합형 점포로 설계됐다.

하나은행과 CU는 지난해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금융특화 편의점 'CU마천

파크점'을 처음 선보인 바 있다. 이들은 전국 1만6000여 개 CU 점포를 은행과 결합해 디지털 라이프 플랫폼으로 강화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신한은행도 지난달 GS더프레시 광진화양점 슈퍼마켓에서 금융권 첫 혁신점포를 개설했다. 신한은행은 이처럼 유통채널 등과 결합한 새로운 점포를 연내 20개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노브랜드, 이마트24 등을 운영하는 이마트와 협업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곳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이달부터 '이브닝플러스' 서비스 운영한다. 여기에는 저녁(9t08) 영업과 토요일(9t05) 영업이 포함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포 통폐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소외 계층을 위해 편의점 혁신점포와 시니어고객 디지털 맞춤 영업점, 공동 점포 등 다양한 방법이 도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 금감원, DB손보·메리츠화재 검사 실손보험금 지급 여부 들여다본다

### 30일까지 수시검사 진행

금융감독원이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보험금 지급에 관련해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배내장 등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강화로 인한 부지급 건에 대해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1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부터 DB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에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기간은 오는 30일까지 15영업일이며, 인력 10명 규모의 현장검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에 대한 전반적인 검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7월부터 작년 말까지가 검사 대상 기간인 만큼 그간 이슈였던 실손보험금 지급 강화가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손

보사들은 꾸준히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있다. 실손보험 적자가 심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배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의 과잉진료로 인해 보험금 지급 기준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률도 함께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대부분의 손보사는 부지급률이 증가했다. DB손보는 2020년 4.1%에서 2021년 9.59%로, 메리츠화재는 같은 기간 1.02%에서 6.2%로 상승했다. 이 외에도 △KB손보(3.3%→4.93%) △현대해상(2.96%→3.82%) △삼성화재(1.13%→1.14%) 등도 올랐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실손보험 관련 배내장과 도수치료 등 도덕적 해이 문제로 인해 의료자금이 늘었고, 부지급 건수도 함께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서지연 기자 sjy@

## "DSR에 미래소득 반영 해외사례 못 찾아"

### 금융위, 금융권에 연구 자문 "美·日, 심사기간 한 달 이상 책정기준 모호해 논란 여지"

금융당국이 청년층의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을 산정할 때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와 유사한 해외 사례를 못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연구원에 청년층, 생애최초주택 구입자 등을 대상으로 DSR 산정 시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방식을 적용 중인 해외 사례가 있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연구원은 시장 전문가들에게 관련 의견을 물었고, 찾아보기 힘든 유형이라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연구원으로부터 미래소득을 반영한 DSR을 적용하는 해외 사례가 있는지 문의를 받았다"라며 "국내 유형은 해외에서 찾기 힘들다"라고 설명했다. 이유는 금융회사들의 심사 관행 환경 등이 해외와 국내가 달라서다. 그는 "미국의 경우 미래소득을 반영한다고 하면 심사 기간을 한 달 이상 가져간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하다"며 "직업군이 다양한 만큼 기준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도 청년층의 미래 소득을 반영하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우려한다. 근로 유형, 기업 규모, 직업군이 다양하므로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책정하는 기준이 모호해서다.

금융권 관계자는 "청년 중에는 근로자인 경우도 있고, 자영업자도 있다. 또한, 근무하는 곳이 대기업일 수 있고, 중

소·영세기업일 수 있다"라면서 "미래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을 계산하는 방식이 어렵다"라고 말했다.

청년층 금융지원에 대한 논란은 올해 2월에 출시한 청년희망적금 때도 컸다. 당시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였다. 작년에 취업해 소득이 증명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한 살 차이로 상품에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 등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금융부문에 금리·물가상승에 취약한 서민·청년 지원조치 보강안이 반영됐다. 저소득 청년층 대출(햇살론 유스) 공급 확대,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보증상품 출시 등이 포함됐다.

서지희 기자 jhsseo@

## 케이뱅크도 '사장님 대출'

### 인터넷銀 3사 치열한 경쟁 예고

케이뱅크가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하면서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개인사업자 대출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케이뱅크는 17일 신용보증재단과 손잡고 개인사업자를 위한 100% 비대면 '사장님 대출'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사장님 대출은 신용보증재단과 제휴한 '온택트 특례보증' 상품으로 대출 한도는 3000만 원,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상환 방식은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무료다. 금리

는 연 3.42% 수준이다. 사업 운영으로 바쁜 개인사업자 고객이 지점 방문 없이, 서류 제출도 없이 휴대폰으로 대출 신청부터 대출 실행까지 10분 이내로 가능하다. 사업자등록 후 1년이 경과한 개인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신용보증재단 대출이 있어도 중복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2월 토스뱅크는 개인사업자 대출인 '사장님 대출'을 내놨다. 카카오뱅크도 연내 개인사업자 대출을 출시하면서 개인 고객 중심의 대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하나銀 "빌라·다세대까지 비대면 주담대"

하나은행은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대출 대상을 기존 아파트에서 연립빌라, 다세대주택까지 확대 개편했다고 17일 밝혔다.

하나은행의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하나원큐 주택담보대출'은 본인 명의 휴대폰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대출 한도와 금리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부터 최종

실행까지 서류 제출과 영업점 방문 없이 100% 비대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전국 모든 아파트와 연립빌라,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구입 자금은 물론 임차보증금 반환, 생활자금 등 손님 필요에 따라 다양한 용도의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최저금리 연 3.34%, 대출 한도는 최대 5억 원이다. 김범근 기자 nova@



17일 오후경(앞줄 왼쪽서 5번째) 저축은행중앙회장 및 저축은행 대표들이 윤재욱(앞줄 왼쪽서 6번째) 정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저축銀 금융소외계층 지원 충실히 수행"

### 저축은행중앙회·정부위원장 간담회

오하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이 윤재욱 국회 정부위원장과 만나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17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오 회장은 이날 오전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정부위원장 및 저축은행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 위원장을 비롯해 오하경 저축은행중앙회장, 저축은행 업계 대표 15명 등이 참석했다.

오 회장은 간담회에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서민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연장해 왔으며, 앞으로도 위기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서민 등에 대한 자금지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건전성이 대폭 개선된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저축은행이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윤 위원장은 "임원 연대책임 완화 등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포함해 서민금융 활성화 지원을 위해 개선해야 하는 사항을 검토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신한금융 '스퀘어브릿지' 참여 스타트업 모집한다

신한금융그룹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인 '신한 스퀘어브릿지'에서 하반기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을 다음 달 7일까지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한금융은 그룹의 중장기 혁신금융 플랜인 '트리플-케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전국에 신한 스퀘어브릿지를 조성,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과 K-유니콘 육성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모집은 신한 스퀘어브릿지 서울과 인천 2개 지역에서 창업 7년 이내의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신한금융은 이번 모집을 통해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15개사, '신한 인큐베이션' 15개사 등 2개 트랙에서 총 30개사를 선발할 계획이다.

특히 신한금융은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와 함께 '스마트시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스마트라이프 △시티인프라 △지속가능한 도시 △바이오·디지털헬스 등 4개 분야의 혁신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전용펀드 투자, 글로벌 네트워크 연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방침이다.

김범근 기자 nova@

# “2400선이 저점...불확실성 여전 vs 저가매수 기회”

## 증권가 하반기 코스피 전망

글로벌 긴축 기조와 지정학적 리스크 등 약재에 증시가 약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증권가에선 주가 바닥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2500대로 떨어진 코스피 지수가 곧 반등을 시도할 거란 전망과 달리 2400까지 떨어질 거란 예상도 나온다. 다만 시장 전문가들은 하반기 주요 불확실성 위험 요인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스텝(한 번에 50bp 금리 인상), 중국의 경기 경착륙 현실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을 꼽으면서 이런 요인이 세계 경기 둔화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들은 하반기 코스피지수 예상밴드를 2400선에서 3000선 사이로 봤다.

IBK투자증권 2400~2850, 한국투자증권 2460~3000, 케이프투자증권 2500~2900, 삼성증권 2500~3000, 하나금융투자 2530~2810 등이다.

변준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한국 수출 증가율 둔화 국면과 미국 장단기 금리 역전을 반영하면 저점은 2400포인트로 예상된다”며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지는 가늠해야



17일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3.86포인트(0.92%) 오른 2,620.44에 거래를 마쳤다.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9.1원 내린 1,275.0원으로, 코스닥은 전장보다 9.73포인트(1.14%) 오른 865.98로 마감했다.

### 하락론

**美금리역전에 금융시장 침체  
인플레이·긴축 따른 경기둔화도  
보수적인 투자 전략 접근해야**

겉지만 금융 시장이 침체 가능성을 Pricing(가격결정)할 여지는 높다”고 전했다.

이어 “물가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우려가 선 반영됐고 하반기에 우려가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단기적으로나

타날 수 있으나 인플레이와 긴축 영향에 따른 본격적인 경기 둔화 양상이 새 부담 요인이 될 것”이라며 “여전히 살얼판을 걷는 듯한 불확실성을 예상, 보수적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코스피가 곧 바닥을 딛고 반등 기회를 얻을 거란 반론도 나온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경기침체 우려까지 선반영된 만큼 우려했던 약재들이 당기에 실현되지 않을 경우 낙폭과다에 따른 기술적 반등 가능성도 점쳐진다.

삼성증권은 하반기 코스피 바닥이 2500

### 반등론

**약재 선반영돼 반등 가능성  
탄탄한 기업 실적도 뒷받침  
대형주 중심 외국인 지분 ↑**

선일 것으로 봤다. 김용구 삼성증권 연구원은 “하반기 코스피 지수는 2500~3000포인트의 상저하고 등락과정 전개를 예상한다”며 “경기 경착륙 논쟁과 연준의 불확실성은 3분기 시장 변동성 확대를 채권할 것

이나 4분기 이후를 겨냥한 저가매수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탄탄한 기업 실적 역시 코스피 강세 전망을 뒷받침하는 이유다. 김용구 연구원은 올해 코스피 상장사들의 순이익이 190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외인들의 귀환도 변수로 꼽힌다. 최근까지 연이어 ‘셀 코리아’에 나서던 외인은 매매패턴이 바뀌고 있다는 평가다. 외인의 코스피 지분율은 지난달 28일 30.90%까지 떨어진 후 꾸준히 늘면서 전날 기준 31.31%까지 회복한 상태다.

손수섭 케이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외국인 지분율 감소는 단기적인 차익 실현 및 리스크 회피 목적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국 경제 및 코스피 기업의 펀더멘탈 약화에 따른 한국 증시 비중 축소 목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환율 정상화 후 귀환하는 외국인에 대비해 ‘외인 빈집털이’ 포트폴리오 구축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지난주까지 외인의 매도가 7주 연속 지속됐으나 주말에는 6거래일만에 순매수로 전환했다”며 “그동안 증시 하락과 반대로 매집해오던 외인은 지분율이 대형주를 중심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국내 테라·루나 시총 600억 가상자산 거래액의 2% 수준”

### 금융시장 영향 크지 않을 듯

국내 테라(UST)·루나(LUNA) 코인의 시총이 전체 국내 가상자산 시총의 2% 안팎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고점 기준 글로벌 시총 50조 원에 달하는 대표 스테이블 코인(미국 달러 등 법정 화폐와 1대1로 가치가 고정된 코인)이었던 만큼 투자자 피해가 클 것으로 많은 우려를 낳았지만,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애초 전망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현시점 기준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유하고 있는 루나 코인의 시총은 약 600억 원이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코인의 시총이 약 3조 원 안팎을 맴도는 만큼, 루나 코인을 통한 피해액은 2% 이하로 추산된다.

업계는 테라·루나의 운영사인 테라폼랩스가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는 점이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앵커 프로토콜로 대표되는 디파이(탈중앙금융) 서비스들이 주로 글로벌 시장을 타깃팅하고 있는

만큼 국내 투자자들의 접근이 많지 않았다는 것이다. 더불어 은행·금융투자업자 등 금융회사들이 가상자산에 투자하지 못하게 한 규제 또한 피해를 줄였다고 분석했다. 겸영규제, 창규제 등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진출할 수 없도록 해 리스크가 번지지 않은 셈이다.

테라·루나 투자자는 약 26만 명으로 추산된다. 가격이 폭락한 만큼 저점에서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유입됐다는 해석이다.

가상자산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루나 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새로운 코인으로 지급하겠다는 구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투자자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들에 루나와 관련한 거래량과 종가, 루나와 테라를 보유한 투자자 수, 금액별 인원수, 100만 원 이상 고액 투자자 수에 대한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 업계 전문가는 “당국 차원에서 실태를 파악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박소는 기자 gogumee@

## 금리 뛰는데...증권사 예탁금 이용료율 ‘요지부동’

### 토스증권 0.2%P 올려 ‘年1%’ 전통 증권사와 최대 10배차

기준금리가 뛰고 있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고객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인상에 인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받는 이자는 연 9%대의 고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는 은행들이 기준금리가 오를 때마다 예·적금 금리 인상에는 땀을 들여 올리고, 대출금리 인상에는 앞뒤 가리지 않는다고 비판받았는데, 비슷한 문제가 증권업계에서도 발생하는 것이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요 전통 증권사와 토스증권의 예탁금 이용료율이 2배가량 차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스증권은 전일부터 예탁금 이용료율을 기존보다 0.2%P 올려 1%로 맞췄다. 금액 제한도 두지 않아 예탁금으로 누구나 연 1% 이자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반면 전통 증권사들의 예탁금 이용료율은 토스증권의 절반 수준이다. 이마저도 금액별로 차등을 뒀 토스증권보다 크게는 10분의 1 수준이기도 했다. 국내 최대 증권사인 미래에셋증권은 다음

달부터 평잔 50만 원 이상인 고객에 한해 예탁금 이용료율을 0.4%로 올린다. 기존엔 0.2%였다. 평잔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엔 예탁금 이용료율 0.1% 유지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국내 35개 증권사의 평균 예탁금 이용료율은 0.199%다. KB증권은 3월 평잔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계좌에 한해 예탁금 이용료율을 0.15%에서 0.42%로 올렸다. SK증권도 평잔 100만 원 초과에 대해 0.10%에서 0.25%, 100만 원 이하에 대해선 0.05%에서 0.10%로 인상을 했다. 이 외 신한금융투자 0.3% (평잔 50만 원 이상), 하나금융투자 0.15% (평잔 100만 원), 키움증권 0.2% (평잔 50만 원 이상) 등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을 올려도 0.5%도 채 되지 않는 셈이다.

예탁금 이용료율은 은행 예금 금리와 비슷한 개념으로, 증권사들은 3개월마다 고객 증권계좌의 하루평균 잔액을 기준으로 이자를 지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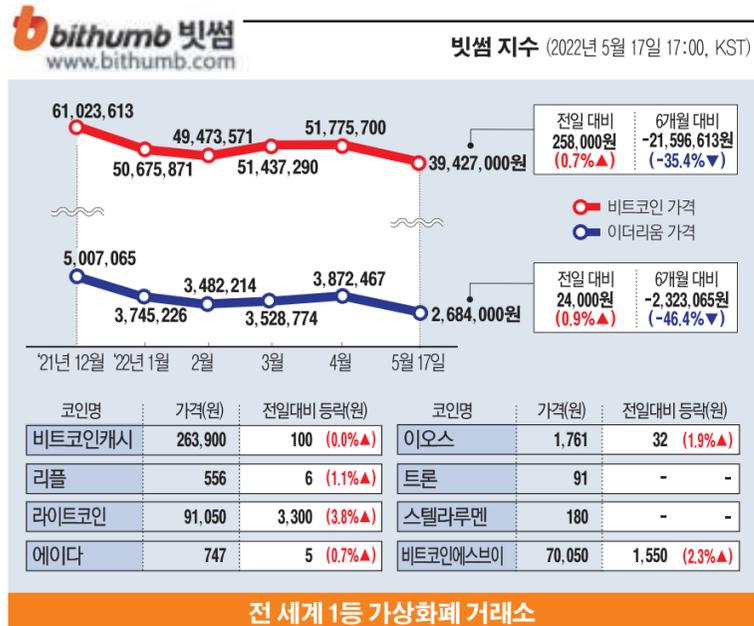
반면 증권사들의 높은 신용융자 금리 문제는 여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융자는 증권사가 주식을 사려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담보로 단기간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유안타증권은 이달 23일부터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구간별로 0.25%포인트 인상한다. 기존엔 마이론 골드 등급 고객이 90일 넘게 신용거래용자를 이용하면 9.70%가 부과된다.

DB금융투자는 6월부터 신용거래용자 금리를 0.2%포인트 인상한다. 90일 이상 신용거래용자를 이용하면, 최대 연 9.71% 이율이 적용된다.

신한금융투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신용융자 이자율을 기존 4.5%에서 4.75% (7일 기준)로 0.25%포인트 인상한다. 미래에셋증권은 4월 금리 산정방식을 체계화(사용 기간별로 이자율을 달리 적용해 합산하는 방식)에서 소급법(전체 대출 기간에 동일 이자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신용융자 금리를 높였다. 기간이 7일 이내(6.0%→4.8%)인 경우를 제외하고 0.9~1.7%포인트씩 신용융자 금리가 올라갔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예탁금 이용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금리 상황보고 그에 따라서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예탁금을 증권 계좌에 두는 것보다 1%대의 금리를 주는 CMA에 넣어두는 게 낫다”고 조언했다. 문수빈 기자 bean@



## 삼성증권, 국내 최초 ‘버추얼애널리스트’

### AI 가상인간이 투자정보 전달

삼성증권은 국내 최초로 ‘버추얼애널리스트’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유튜브 콘텐츠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추얼애널리스트는 삼성증권이 애널리스트 모습과 음성 등을 인공지능(AI) 기술로 학습시켜 만든 가상 인간이다. 텍스트만 입력하면 실제 애널리스트가 방송을 진행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투자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AI 학습, 3D기술 등을 통해 만들어진

가상인간은 최근 들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 등에 매체에서 활용되기 시작했으나, 실제 현업에서 활약하는 애널리스트를 복제해 만든 가상인간을 투자정보 전달에 활용하는 것은 국내 최초다.

삼성증권은 버추얼애널리스트를 AI후면전문기업 답브레인과 함께 개발했으며, 삼성증권이 서울대 휴먼인터페이스 연구실과 공동 개발해 특허받은 음성합성모델도 함께 활용해 버추얼애널리스트 방송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설명이다.

정명지 삼성증권 투자정보팀장은 “버추



얼애널리스트의 도입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종목이나 시장연구, 기관고객 세미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하는 시간에도 버추얼애널리스트를 통해 시의적절한 유튜브 방송을 할 수 있게 되어 리서치 효율과 고객만족도 모두 높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욱 기자 sajikoku@

# LG, 코엑스에서 '모빌리티·6G·AI' 혁신기술 뽐낸다

## 'IEEE ICC 2022' 참가

모빌리티 콘셉트 '옴니팟' 전시  
연결성 높은 차세대 통신SW 공개  
스스로 진화 인공지능 칩도 선보

LG전자가 SDV(소프트웨어 기반 자동차)를 포함한 신사업 분야의 혁신 기술 알리기에 나선다.

LG전자는 오는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IEEE ICC 2022' (전기전자공학회 국제통신회의)에 참가해 △커넥티드카 △6G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을 선보인다고 17일 밝혔다.

ICC는 세계적 권위를 자랑하는 IEEE 산하 통신 소사이어티에서 주관하는 국제 학술행사다. 올해는 온·오프라인을 병행하며 세계 각지의 통신 및 네트워크 분야 전문가 2000여 명이 참석해 미래 기술 비전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김병훈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부사장)가 '스마트



LG전자 부스에서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 공간으로 해석해 만든 미래 모빌리티의 콘셉트 모델 'LG 옴니팟'을 전시하고 있다(왼쪽). LG전자 직원이 독일 프라이호퍼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6G 테라헤르츠 안테나 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LG전자 직원이 독일 프라이호퍼 연구소와 함께 개발한 6G 테라헤르츠 안테나 모듈을 소개하고 있다.

모빌리티를 위한 연결성과 소프트웨어 기반 설계의 기술 발전'을 주제로 키노트를 진행한다.

지난해 초 IEEE에서 통신 분야 전문가로서의 역량과 연구성과를 인정받고 IEEE 펠로우(석학 회원)로 선정된 김 CTO는 SDV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 발전 방향과 LG전자가 SDV와 스마트 모빌리티를 위해 연구·개발하고 있는 기술 및 서비스 등을 소개한다.

김 CTO는 "미래 자동차가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스마트 모빌리티의 다양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며 "미래 커넥티비티(차량연결기술) 핵심 기술인 6G와 인공지능의 차별화된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모빌리티, 메타버스, 로봇 등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강화해 고객에게 새롭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LG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미래먹거리로 접목은 다양한 분야의 혁신 기술들도 선보인다. LG전자는 행사 주제인 '스마트한

세상을 위한 지능형 연결' (Intelligent Connectivity for Smart World)에 맞춰 미래 모빌리티의 콘셉트 모델 'LG 옴니팟'을 전시한다.

차량을 집의 새로운 확장 공간으로 해석해 만든 LG 옴니팟은 사용자의 니즈에 따라 오피스 또는 엔터테인먼트 공간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 차량 내에서 소핑을 즐기는 메타버스 컨셉을 적용해 새로운 모빌리티 경험도 제공한다.

LG전자는 스마트 모빌리티와 함께 차

세대 통신 기술 등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도 함께 공개한다.

LG전자는 △6G 테라헤르츠(THz) 무선 데이터 송수신을 위한 전력 증폭기 소자 △주파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FDR(전 이동 통신) 송수신 기술 △차량과 보행자 사이는 물론 차량과 차량 간 충돌위험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솔루션 Soft V2X(차량과 모든 개체 간 통신) △고객이 스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도록 공간·사물·사용자 상황을 인지해 스스로 진화하는 온디바이스(On-Device) AI 칩 등을 소개하는 공간도 마련했다.

한편 LG전자는 LG AI연구원 및 LG-KAIST 6G 연구센터 설립 등 6G를 비롯한 모빌리티, AI, 로봇 등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고 연구·개발을 가속하고 있다. 또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커넥티비티,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 솔루션 등을 개발하며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도 공급 중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저명한 학자와 전문가들이 모인 이번 행사에서 LG전자가 가진 모빌리티·6G 등 분야의 기술력을 보여주는 데 (참여)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강태우 기자 burning@



**'아웃룩' 없앤 LG 창호형 에어컨**  
LG전자는 돌출 없이 국내 가정의 창호에 딱 맞는 디자인과 냉방 성능이 우수한 창호형 에어컨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옛지'를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LG 휘센 오브제컬렉션 옛지는 공기 흡입구를 전면 배치해 제품을 이중창 바깥쪽에 설치할 수 있다. 에어컨 돌출을 최소화해 블라인드나 커튼 사용도 가능하다. 사진제공 LG전자

## 이재용, 故 셰이크 할리파 UAE 대통령 조문

대사관에 차려진 빈소 직접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오후 6시(故) 셰이크 할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대통령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빈소는 서울 용산구 주한 아랍에미리트(UAE) 대사관에 마련됐다.

세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할리파 대통령을 조문한 것은 그동안 UAE 리더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세계 관계자는 "과거에 무함마드 왕세제가 화성 사업장을 방문하고 이 부회장이 이를 안내하는 등 인연이 있다 보니 직접 빈소를 찾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특히 할리파 대통령이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국정을 이끌어온 무함마드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왕세제와도 각별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지난 14일 UAE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된 무함마드 왕세제가 2019년 2월 삼성전자 화성 사업장을 방문했을 때 이 부회장이 5G와 반도체 전시관 및 생산라인을 직접 안내한 바 있다.

당시 두 사람은 5세대 이동통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 삼성전자와 UAE 기업 간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재용(왼쪽) 삼성전자 부회장이 故(故) 셰이크 할리파 빈 자에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대통령을 조문하기 위해 17일 주한 아랍에미리트대사관을 찾아 압둘라 알 누아이미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관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이 부회장은 무함마드 왕세제가 방문하기 직전인 2019년 2월 11일 아부다비를 방문했으며 지난해 12월에는 무함마드 왕세제가 UAE에서 연 비공개 포럼에 참석하기도 했다.

빈소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최성안 삼성엔지니어링 사장이 함께 빈소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그동안 삼성물산의 두바이 부르즈 칼리파 시공 참여와 삼성엔지니어링의 정유 플랜트 사업 등 건설·엔지니어링 분야를 중심으로 UAE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왔다. 강태우 기자 burning@

## 14년 만에 히타치 '아성' 넘었다 현대건설기계, 인도 굴착기 1월 판매 첫 1위

4월 382대 판매·점유율 19%  
현지 맞춤형 생산·영업망 확충  
특별 판촉·수리 서비스 등 주요

현대제뉴인(현대중공업그룹 건설기계부문 중간지주회사) 계열사인 현대건설기계가 지난 2008년 인도 시장 진출 이후 14년 만에 처음으로 월간 굴착기 판매량 1위를 기록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지난 4월 총 382대의 굴착기를 판매해 19%의 시장점유율로 판매 1위를 기록했다고 17일 밝혔다. 현대건설기계는 올해 인도시장서 1월 286대, 2월 382대, 3월 336대의 굴착기를 판매를 판매했다.

인도는 미국과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의 건설기계시장으로 일본기업인 히타치가 점유율 1위를 지켜왔었다. 히타치는 지난달 점유율 17.3%에 그치면서 현대건설기계가 처음으로 1위를 차지하게 됐다.

현대건설기계는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해 소형 굴착기 대상 특별 판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장비 고장 등에 대비해 CFT(업무협약체, Cross Functional Team)를 꾸려 애프터서비스(AS)를 강화하는 전략을 펼쳤다. 또 인도 현지 푸네에 있는 생산공장을 통해 맞춤형 장비를 생산하고 영업망을 확충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현대건설기계 관계자는 "인도 현지 푸네에 있는 생산공장을 통해 맞춤형 장비를 생산하고 영업망을 확충했고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 마케팅을 확대한 것이 주요했다"고 했다.

현대건설기계는 굴착기 판매 외에 부품 매출에서도 4월 한 달간 225만 달러(약 28억 8000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인도 법인 설립 이후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현대건설기계는 인도 건설장비 시장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시장 다변화 전략을 펼치기 위한 핵심 지역으로 삼고 있다. 인도 정부는 현재 100조 루피(약 1657조 원) 규모의 대규모 인프라 계획 '가티 샤키티(Gati Shakti)'를 추진 중이다. 올해에만 인프라 개발 목적의 예산을 지난해보다 35.4% 증가한 7조 5,000억 루피(약 124조 원)로 할당할 예정이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리서치앤마켓에 따르면 인도 건설시장은 2024년까지 연평균 15%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쌍용차 부활 야심작 '토레스'... 내달 사전계약 스타트

'J100' 차명 확정... 티저 공개  
남미 남부 국립공원서 이름 따와

쌍용자동차가 17일 출시를 앞둔 스포츠 유틸리티차량(SUV)의 차명을 '토레스'로 확정하고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했다. 토레스는 다음 달 사전계약을 시작으로 양산에 돌입한다.

쌍용차가 프로젝트명 'J100'으로 개발해 온 '토레스'는 남미 파타고니아 남부의 지구상 마지막 남은 절경으로 불리는 '토레스 델파이네 국립공원'에서 이름을 따왔다. 토레스 델파이네 국립공원은 유네스코의 생물다양성 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에서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세계 10대 낙원으로 선정됐다.

쌍용차는 이처럼 광활한 대자연의 경이로움과 생물다양성 보존 등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한 토레스를 통해 모험과 도전 정신, 자유로운 라이프스타일의 가치를 구



쌍용차가 프로젝트명 'J100'으로 개발해 온 신차명을 토레스(TORRES)로 확정, 티저 이미지와 영상을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진제공 쌍용차

현한 정통 SUV라는 의미에서 토레스라는 이름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쌍용차는 토레스의 외관 디자인을 살펴볼 수 있는 티저 이미지도 공개했다.

'토레스'는 쌍용차의 새로운 디자인 비전이자 철학인 '강인함에서 나오는 힘(Powered by Toughness)'를 바탕으로 디자인한 첫 작품이다. 쌍용차가 공개한 토레스의 티저 영상에는 파타고니아 산맥

과 토레스 델파이네 국립공원의 광활한 대 자연을 배경으로 토레스의 탄생과 앞으로의 각오와 의지, 쌍용차를 응원해준 고객에게 감사한 마음 등이 담겼다.

쌍용차 관계자는 "세분화돼 가고 있는 SUV 시장에서 토레스는 준중형 SUV 코란도와 대형 SUV 렉스턴 사이의 간극을 매우 고 차급을 넘나들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민재 기자 2mj@

## “차세대 원전으로 넷제로 속도” SK, 美 테라파워와 협약 체결

SMR 역량-자사 사업영역 연계  
“장기적 탄소중립 해결책 될 것”



17일 서울 서린사옥에서 장동현(왼쪽) SK(주) 부회장과 김준(오른쪽)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이 크리스 르베크 미국 테라파워 CEO와 포괄적 사업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사진제공 SK

SK·SK이노베이션이 미국의 대표 소형모듈원자로(SMR) 기업과 협력하며 탄소 감축 목표 실행에 속도를 낸다.

17일 SK에 따르면 장동현 SK 부회장과 김준 SK이노베이션 부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사옥에서 크리스 르베크 테라파워 최고경영자(CEO)와 포괄적 사업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테라파워는 2008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설립한 회사로, 차세대 원자로의 한 유형인 소용량고속로(SFR)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테라파워의 SFR 기술인 나트륨(Natrium)은 현재 가동 중인 3세대 원전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이 개선됐다. 또 미국 에너지부의 자금 지원으로 2028년 상용화를 목표로 실증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SK는 테라파워의 SMR 기술과 방사성 동위원소 생산 역량을 자사의 사업 영역과 연계해 다양한 협력 기회를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SK는 테라파워와의 공동 기술 개발 협력이 국내 원전 관련 기업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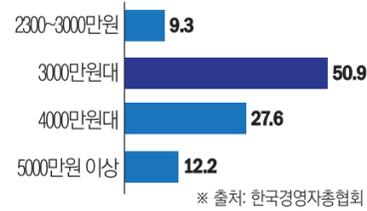
SMR 핵심 기술 확보 및 차세대 원전 운영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K는 탄소 배출 없는 안전한 전력원인 SMR의 경쟁력에 주목해왔다. SMR이란 기존 대형원전보다 발전 용량과 크기를 줄인 500메가와트(MW)급 이하의 원전이다.

테라파워의 SFR은 핵폐기물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는 핵연료 기술을 활용하면서도 높은 안전성을 확보했다. 기존 대형원전은 물을 냉각재로 사용하지만, SFR기술은 끓는점이 높아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액체 나트륨을 냉각재로 사용한다. 또 설계와 건설 방식이 간소화돼 설치와 운영에 드는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이런 장점으로 인해 SMR은 장기적으로 탄소중립을 해결할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이다숨 기자 citizen@

# “MZ세대, 연봉 3000만원 이상 선호”

경총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위라벨 보장 일자리 희망 66.5%  
절반 이상이 수도권서 구직 원해  
10명 중 8명 “중소 취업의향 있다”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의 연봉’ 수준 (단위: %)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선호하는 일자리는 ‘위라벨’(일과 삶의 균형)이 보장되고 수도권에 있는 연봉 3000만 원 이상인 곳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20~39세 남녀 구직자 1000명을 대상으로 ‘MZ세대가 생각하는 괜찮은 일자리 인식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괜찮은 일자리(복수응답)로 ‘일과 삶의 균형이 맞춰지는 일자리’(66.5%),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일자리’(43.3%)를 높게 선택했다. 이어 ‘복지제도가 잘 되어 있는 일자리’(32.8%), ‘회사 분위기가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일자리’(25.9%) ‘정년보장 등

오래 일할 수 있는 일자리’(14.0%), ‘기업 및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일자리’(12.4%) 등 순이었다.

연봉수준은 ‘3000만 원대’라는 응답이 50.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000만 원대’(27.6%), ‘5000만 원 이상’(12.2%), ‘2300만(2022년 최저임금 수준)~3000만 원’(9.3%) 등으로 집계됐다.

괜찮은 일자리로 생각하는 지역은 절반 가량(50.7%)이 수도권을 꼽았다. 다만 지방 거주자의 경우 ‘위치와 상관 없음’이라는 응답이 53.6%로 절반을 넘었다.

응답자의 35.1%는 괜찮은 일자리에 취직했을 경우 예상 근속기간을 ‘10년 이내’로 봤다. ‘정년까지 계속’(29.8%), ‘10~

20년’(27.6%), ‘20년 이상’(7.5%) 등으로 조사됐다.

괜찮은 일자리의 기업 규모는 ‘중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29.1%로 가장 높았다. ‘300~999인’(26.0%), ‘100~299인’(25.6%), ‘100인 미만’(12.6%), ‘1,000인 이상’(6.7%) 등이 뒤를 이었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괜찮은 일자리라면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응답자의 60.0%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향이 있다’고 했다.

MZ세대는 괜찮은 일자리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했다. 전체 일자리 대비 괜찮은 일자리 비중은 ‘10% 내외’라는 응답이 39.0%, ‘10~20%’라는 응답이 36.4%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괜찮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날 산업 부문으로는 ‘IT·정보통신’이라는 응답이 35.4%로 가장 높았다.

경총 임영태 고용정책팀장은 “MZ세대의 노동시장 진입과 복귀에 부담이 없도록 유연성을 높이는 동시에 고용안전망도 촘촘히 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 인천공항 식음매장 임대료 감면기간 늘 듯

6개사 대상 을 연말까지 유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예정된 인천국제공항 내 식음매장 임대료 감면 연장 기한을 유예할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인천국제공사는 파리크라상, CJ푸드빌, 롯데GRS, 아워홈 등 6개 운영사업자와 식음료매장 전대차 계약을 맺고 있다.

17일 컨세션 업계 및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파리크라상, 씨제이푸드빌, 롯데GRS, 아워홈, 아모제푸드, 풀무원푸드앤컬처 등 6개 식음매장 운영사업자는 인천국제공항에서 210개 매장 중 80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사업자들에게 대한 임대료 감면 연장 여부가 오는 6월 이후 결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올 연말까지 임대

료 감면을 유예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컨세션 업계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유예하는 것으로 공사 내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이용자 수가 일평균 20만 명에 달했던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최근 이용자 수는 3만 명 수준이다.

공정거래법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 따라, 당사자 간 합의의 통해 형성된 전대차 등 계약조건에 대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접 관여하진 않는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코로나 19에 따른 위기상황을 고려해 2019년 동월 대비 여객 감소율만큼 고정임대료(최소보장액, 영업요율 제외)를 감면해왔다. 전대사업자도 전차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임대료를 감면하도록 의무화한 실정이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 세아베스틸, 기업과 손잡고 원전시장 공략

오라노티엔·한국전력기술 MOU

세아베스틸이 국내외 원전 전문 기업들과의 파트너십 강화로 원전시장 공략에 나선다.

세아베스틸은 오라노티엔(Orano TN) 및 한국전력기술(KEPCO E&C)과 국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 사업 기회 발굴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MOU를 통해 세아베스틸과 오라노티엔, 한국전력기술 3개사는 각 사가 보유한 전문 기술 및 정보 교류, 원전사업 동반 진출 등의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간다. 오라노티엔은 건식저장 시스템 기술 제

공 및 공급을 담당한다. 세아베스틸은 건식저장 시스템의 제작 및 공동공급을 맡고, 한국전력기술은 저장시설 설비를 포함한 건식저장 시스템 인허가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아베스틸은 오라노티엔(Orano TN)으로부터 수주받은 사용후핵연료 운반·저장용기(CASK)를 지난 3월 국내 최초로 미국에 납품했다. 2021년에는 국내 최초로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고연소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운반용기 적치 제품(SKID), 운반용기 인양작업 도구(YOKE) 제작과 CASK의 열 전달 시험 등 각종 평가를 수행했다.

유진의 기자 jinny0536

# 세움EAP는

행복하고 건강한 기업 및 가족 문화를 위하여,  
최적화된 교육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멘탈헬스케어 전문기업입니다.

근로자 심리상담  
프로그램

학교 심리상담  
프로그램

상담사 교육양성  
프로그램

세움 EAP 주식회사

www.seumeap.com

〈중소벤처기업부〉

# 이영 장관,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찾는다

코로나 피해 현장 애로 청취  
추경 이후 이달 말 방문할 듯  
'소급적용' 해법 찾을지 주목  
손실보상 업무 소진공 격려도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취임 첫 행보로 소상공인·자영업자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의 피해를 입어 온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피해 회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업무의 핵심 축으로 일해 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방문도 거론된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 업계에 따르면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달 말께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직접 만날 예정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들으려는 이 장관의 의지가 반영되는 것으로 보인다. 방문 장소와 정확한 날짜는 현재 내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문 시기는 추경안 심사와 집행 일정 등 급한 불을 끈 뒤 이달 말께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과 함께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돌입했다. 오는 18일까지 상임위원 예비심사를 마치고, 19~20일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

과 6·1지방선거를 감안해 5월 안에 추경 원안 통과와 집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기부 내부에선 추경 집행이 이달 27~30일께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고, 이 장관의 현장 방문도 이 즈음 가능할 전망이다. 추경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중기업들은 최소 600만 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추경 통과와 집행 등 시급한 일정이 마무리되면 이달 말께 관계된 현장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부에선 이 장관이 소진공을 찾아 손실보상 업무를 격려하고, 힘을 실어줄 것이라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실무를 최전선에서 맡아온 핵심 기관이다. 당초 소진공의 주요 업무

는 소상공인 육성과 전통시장 활성화였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손실보상 업무가 본격적으로 더해졌다. 직원 1명 당 8000~1만 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업무를 맡아야 할 만큼 업무가 과도하다는 호소가 많았다.

이 장관의 이같은 행보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장관 취임 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가 반영됐기 때문이다.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도 중기부의 과제를 크게 4가지로 압축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을 가장 시급한 업무로 지목했다. 이 장관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경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하고, 저금리 융자, 재취업·재창업, 사회보험·공제 지원 강화 등 우리 부가 갖고 있는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소상공인의 자립과 재도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두고 자영업자·소상공인과 정부 간 온도차가 커 불편한 기류가 형성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현재 소상공인연합회는 "코로나19 피해를 지원하러 온 손실보상이 되려면 소급적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 장관은 소급적용에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소급적용 도입과 관련한 질의에 "중기부의 정해진 예산 안에서 필요성을 느꼈을 때 의지를 표명할 수 있다. 재정당국도 아니고 그 정도가 제가 드릴 수 있는 책임감인 것 같다"며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바 있다.

김동호 기자 sorahosi@

## 위워크코리아, 1분기 매출 23% 늘어... "질적 성장에 집중"

순이익은 206억 '흑자전환'  
'프리미엄' 전세계 확대 검토  
"신규 지점 출점 가능성 있어"

"많은 분들의 우려와 달리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팬데믹 때 매출이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나 지난해 매출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20%가 넘었다."

전정주 위워크 코리아 대표는 17일 서울 스캐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위워크 코리아의 2021년 매출은 997억 원이다. 2020년 924억 원, 2019년 765억 원에 이어 꾸준한 성장을 거듭했다. 4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당기 순이익도 206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다.

위워크 측은 신규 지점 확장 없이 적은 지점으로도 이룬 매출 성장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위워크는 2020년 4월 신نه현점을 개장한 이후 새로운 지점을 열지 않았다. 몸집 불리기보다 질적 성장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전정주 대표는 "올해 1분기 매출 역시 전년 동기 23% 늘어, 로컬 경쟁사 대비 적은 지점으로도 매출 면에서는 업계 1위를 수성하고 있다"면서 "신규 출점을 안하고도 이룬 매출이라 좀 더 값진(수



전정주 위워크코리아 대표가 17일 서울스캐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사업 성과와 올해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위워크코리아

치로)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위워크 본사의 1분기 매출 또한 지난해 7억 6500만 달러로 직전 4분기 대비 7% 성장했다. 위워크는 지난해 10월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한 이후 지속해서 손실을 줄여나가고 있다. 1분기 순손실은 4억 35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억 3000만 달러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때 기업가치 470억 달러(약 59조 원)에 달했던 위워크는 2019년 IPO 과정에서 낮은 영업 이익과 방만한 경영 등이 문제가 되며 위기를 겪은 바 있다. 최근 이를 중심으로 창업자 애덤 뉴먼 일대기를 다룬 애플TV 영화 '우린폭망했다'

(WeCrashed)가 공개돼 주목을 받기도 했다.

현재 위워크는 전 세계 38개국에서 765개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은 위워크가 입점한 전 세계 도시 중 런던, 파리, 싱가포르와 함께 1분기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은 도시이다.

전정주 대표는 그 이유로 안정적인 한국의 코로나 방역 상황과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의 폭발적인 성장, 달린 한국 대기업의 근무 문화를 꼽았다. 국내 유수의 대기업은 과거와 같은 고정적인 회사 근무 방식을 탈피해 서울 곳곳에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며 위워크와 협업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inglass@

## 스페이스, 레디 플레이어 미 협업 "아바타 통한 경험 공유 플랫폼"

글로벌 메타버스 플랫폼 '스페이스(Spatial)'이 메타버스 아바타 플랫폼 '레디 플레이어 미(Ready Player Me)'와 협업을 통해 전신 아바타 커스터마이징 기능을 제공한다고 17일 밝혔다.

2017년 VR·AR 기반의 온라인 협업 툴로 시작한 스페셜은 2021년에 설치나 별도 기기가 필요없는 웹 기반 서비스를 추가하며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디지털 아티스트와 크리에이터를 중심으로 가상 갤러리를 통한 NFT 전시회가 주목받고 있다.

기존의 스페셜은 실사에 기반한 얼굴 표현과 상반신 아바타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웹으로 기반을 넓힌 만큼, 이번 레디 플레이어 미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하반신을 포함한 아바타와 다양한 스타일의 커스터마이징으로 더 몰입도 있는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것이라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제공되고 있는 아바타 옵션 외에도 이용자가 자신의 신체적, 문화적 정체성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나갈 방침이다. 향후에는 다양한 전통의상과 춤 동작도 추가할 예정이다.

이날 시연회에 참석한 이진하 CPO(최고제품책임자)는 "기업들의 협업 플랫폼으로 시작한 스페셜이 이제는 디지털 창작자들을 위한 공간으로 진화했다"면서 "단순한 소통이 아닌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미션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기능 확장을 통해 다양한 사용자들의 가치와 문화를 대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면서 "스페이스의 몰입감이 높아짐에 따라 기존 이용 패턴을 넘어서 더 보편적인 방식으로 사랑받을 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CPO는 블록체인의 연계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디지털 자산을 경험으로 바꿀 수 있는 효율적인 플랫폼이 스페셜"이라면서 "다만 블록체인을 직접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시은 수습기자 zion0304@



## LG유플러스, 직장인·키즈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

오피스, 재택업무 사무실처럼  
동물원, 30여종 야생동물 만나

"경험도 디지털화한다. 그게 메타버스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LG유플러스가 기존 플랫폼과 차별화된 직장인·키즈 특화 메타버스 서비스에 진출한다. 고객에 집중하는 서비스로 타깃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17일 용산사옥 대강당에서 메타버스 기술 및 서비스 관련 스타디움을 열고 미래 기술과 전략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민구 LG유플러스 서비스인큐베이터 Lab장 등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LG유플러스는 이날 U+가상오피스, U+키즈동물원, 무너NFT 등 신규 서비스 3종을 공개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일상화된 직장인과 놀이하듯 즐기는 학습

을 원하는 어린이 등 고객을 대상으로 꼭 필요한 기능을 제공해 고객 경험을 혁신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상엽 LG유플러스 CTO(최고기술책임자)는 "앞으로는 현실에서 벌어졌던 고객 경험이 메타버스로 이전될 것이며, 가상공간 내에서 고객이 실제 가치를 체험하며 확장된 경험을 느끼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선택과 집중 전략을 채택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고객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고객 경험을 지속 혁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U+가상오피스는 재택 업무환경에 특화된 서비스다. 출근부터 퇴근까지 실제 사무실에서의 업무 과정과 동일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채팅과

음성·영상 대화, 화상회의 등 업무에 필요한 통합 커뮤니케이션 솔루션 기본 기능을 탑재하고 있으며 AI 회의록, 협업 툴, 아바타 대화하기 등 소통과 관련한 다양한 기능도 제공한다. U+가상오피스는 임직원과 일부 고객사에 우선 서비스를 제공한 뒤 내년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U+키즈동물원은 30여종의 야생동물과 20여종의 공룡을 만나 배울 수 있는 AI 기반 서비스다. 체험과 학습을 목표로 가상 동물원 체험, NPC와 동물 학습 등 다양한 볼거리와 배울거리를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타깃 고객군인 '알파세대(2010년~2020년 태어난 세대)'에게 메타버스가 일상생활의 기본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새로운 시청각경험과 학습효과 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서비스를 개발했다

고 설명했다. U+키즈동물원은 올 하반기 오픈 베타 버전을 선보인 뒤 다양한 주제의 학습요소들을 지속 추가해 국내 대표 키즈 메타버스 서비스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 캐릭터를 '무너'를 활용한 NFT도 발행한다. 오는 25일 무너 NFT 200개를 전용 웹사이트를 통해 발행하며 이를 구매한 고객에게는 2차 발행시 우선 구매권, 레고랜드 티켓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앞서 무너커뮤니티에서 진행한 사전예약에서는 무너NFT 50개가 9분만에 마감되기도 했다. NFT 판매 수익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하며 올 하반기에는 2차 NFT를 발행할 예정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공부가 고민인 지호  
진로를 상담 받고 싶은 하늘이  
재능을 찾고 싶은 소희

우리 아이들의 소중한 꿈  
사라지거나 묻혀있지 않도록  
함께하는 든든한 금융

농촌지역 학생들의 꿈  
더 크게 키우겠습니다

든든한 민족은행  
NH농협은행



**초록사다리 캠프**

농촌지역 학생들의 잠재력과 꿈을 키우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NH농협은행은 농촌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멘토링 프로그램(학습지원, 진로상담, 재능기부) | 합숙 프로그램(진로체험, 대학탐방)

# 풀무원 이어 채선당 가서... 밥그릇 늘리는 밀키트 무인점포

**‘출출박스’ 병원·기업 등 입점 ‘채선당 밀키트24’ 마켓 선보여 내년 시장규모 4780억 전망 창업 비용 저렴해 가맹점 늘어**

밀키트 무인 판매점이 급성장하면서 외식기업들이 사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다. 사브사브 전문점 채선당이 24시간 무인 밀키트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 풀무원은 푸드 플랫폼 ‘출출박스’ 사업을 강화하며 가맹사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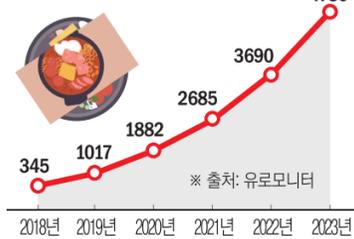
◇ 풀무원 입점 확대... 채선당 출사표= 풀무원은 건강과 지속가능성을 담은 바른 먹거리를 제공하는 기업 맞춤형 O2O 푸드 플랫폼 ‘출출박스’의 신규 입점처를 확대하고 맞춤형 식단 운영 서비스를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풀무원 ‘출출박스’는 풀무원의 다양한 신선식품과 냉장·냉동 도시락, 간편식(HMR) 등을 구매할 수 있는 스마트 무인 판매 플랫폼이다.

‘출출박스’는 2019년 5월 론칭 후 3년간 연평균 약 350%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는 음료, 요거트, 과일 등 건강 간식 카테고리를 중심으로 운영하였으나 현재는 도시락, 샐러드와 같은 한 끼 식사부터 당뇨케어식, 체중조절식과 같은 개인 생애 주기 및 생활주기 맞춤형 식단까지 확대해 운영하고 있다.

최근 ‘출출박스’는 최근 다수의 기업과 공공기관으로의 신규 입점을 확대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대병원 본관, CMI, 암병원, 의생명연구원, 어린이병원에 입점했고, 포스코 포항 본사에는 지난해 12월 첫 입점 이후 현재 총 13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서울지방경찰청, 강남세브란스병원,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한국타이어, SK 계열사 등에서 운영 중이다. 현재는 모두 직영점으로 가맹점은 없다.

이에 앞서 4월 외식 프랜차이즈 채선당은 밀키트 전문점 ‘채선당 밀키트24’를 선보였다. 채선당이 외식 기업을 운영하며 쌓아온 노하우에 ‘채선당 도시락&샐러드

**국내 밀키트 시장 규모 및 전망치**  
(단위: 억원)



밀키트24’ 운영을 통한 밀키트 사업 경험을 더해 만든 프리미엄 밀키트 마켓이다. 무인 키오스크 시스템을 도입해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며, 매장 상주 직원이 없어 여유롭게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기존 채선당 사브사브 매장에서만 판매하던 사브사브, 월남쌈, 밀피유나베, 사브칼국수 등 채선당의 인기 PB(자체브랜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회사 관계자는 “집밥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밀키트 시장의 가능성 발견과 채선당 도시락&샐러드 밀키트24의 인기와 예비 창업

자들의 요청에 힘입어 밀키트를 단독으로 선보이며, 시장에 본격 진출하게 됐다”고 말했다.

◇ 밀키트 시장 2023년 4780억=현재 무인 밀키트 시장은 주로 스타트업이나 소기업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60여 개의 업체가 활약 중이다. 대표 브랜드는 영상에프앤비가 운영하는 ‘집어가’로 지난해 4월 부산 창업박람회 시작으로 론칭 1년 만에 350개 매장을 돌파하며 덩치를 불리고 있다. 일가브 라더스의 ‘오늘셰프’는 200여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가수 박군을 모델로 기용해 공세를 높이고 있는 ‘집밥뚝딱’은 현재 150여 개의 점포가 있다.

스타트업과 소기업들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외식업체들이 무인 밀키트 매장에 눈독 들이는 이유로는 국내 밀키트 시장의 성장세가 쉼없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2017년 15억 원에 불과했던 밀키트 시장 규모는 2019년 1017억 원, 올해 3690억 원을 넘어 내년에는 47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으로 전망된다.

창업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인건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도 부각된다. 불황으로 실업률이 높은 가운데 젊은 층이 창업에 나서기 쉬운 아이템이라는 얘기도.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실업자는 32만2000명으로 청년실업률은 7.4%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으로 5년새 29.4% 치솟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집어가’의 가입비와 교육비, 보증금 등을 포함해 사업자 부담금은 4105만 원이며, 여기에 예치금 1410만 원이 필요하다.

‘채선당밀키트24’는 가맹점 부담금 6327만 원에 인테리어 비용은 기준면적(33㎡) 기준 2530만 원이 든다. 여기에 예치금 1025만 원이 필요하다. 이는 대표적인 창업 아이템인 커피 전문점 이디야를 창업할 때 가맹점 부담금 1억2913만 원과 66㎡ 기준 인테리어 4180만 원에 예치금 1820만 원과 비교할때 비용이 적게 드는 편이다.

남주현 기자 jooh@

## 폐기 대신 할인... 고물가에 편의점 ‘땡처리’ 인기

**세븐일레븐 ‘라스트오더’ 첫선 CU, 70% 할인 ‘그린세이프’ 유통기한 임박 할인 수요 몰려**

불안한 물가에 편의점의 유통기한 임박상품, 라스트오더 서비스로 수요가 몰리고 있다. 소비자들은 최대 30~70% 까지 저렴하게 도시락, 가정간편식 등의 상품을 구입할 수 있고, 업계는 자칫 버려질 수 있는 식품 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ESG경영(환경·사회·지배구조) 가치에 부합한다.

17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주요 편의점 업체들이 운영하는 마감임박 상품 판매 관련 서비스 매출이 일제히 올랐다. ‘그린세이프’를 운영하고 있는 BGF 리테일의 CU는 올해 1~4월 관련 매출이 전년 대비 17%, 이마트24의 ‘라스트오더’는 4월 매출이 전월 대비 106% 뛰었다. 세븐일레븐도 올 2~4월 라스트오더 매출이 전년비 20% 올랐고 GS25 역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리고 있다.

라스트오더 서비스가 인기인 건 최근 치솟는 물가 상승과 연관이 깊다. 소비자들 유동기한 임박상품을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잘 팔리는 카테고리 역시 도시락, 김

**주요 편의점 업체 라스트오더 서비스**

서비스명	취급 카테고리	할인 폭
CU	그린세이프(마감할인)	식품류 등점포당 평균 2500~3000여종 최대 70%
GS25	당근마켓x마감할인판매	도시락, 김밥, 간편식 등 최대 60%
세븐일레븐	라스트오더	도시락, 삼각김밥 등 23개 카테고리 5000여개 상품 평균 30%
이마트24	라스트오더	술, 담배 등 제외한 삼각김밥 등 제품 평균 30%

\* 출처: 각사

밥, 햄버거, 간편식 등으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 있는 품목들이 대부분이다. 세븐일레븐의 경우 도시락, 삼각김밥 등이 전체 라스트오더 매출의 45%를 차지한다.

편의점 업계에서 가장 먼저 이 서비스를 내놓은 곳은 세븐일레븐이다. 2020년 2월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론칭한 세븐일레븐은 점주에게 추가수익을 돌리고 폐기물 감축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현재 전국 1만 여점에서 운영 중이고, 취급 상품군은 23개 카테고리 5000여 종이다. 론칭 이후 누적 판매량 160만 개를 넘기며, 이에 따른 폐기 절감액만 45억 원에 달한다.

뒤이어 그린세이프 마감 할인을 도입, 2020년 11월에 서비스를 확대한 CU도 최대 70% 할인가에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내놓는다. 점포당 평균 2500~3000여 종의 상품을 대상으로 그린세이프 마감할인을 실시한다. 회사 관계자

는 “식음료를 비롯한 생활물가가 오르는 가운데 편의점 장보기 수요와 함께 관련 수요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GS리테일은 당근마켓과 손잡고 지난해 7월 ‘마감할인 판매’ 서비스를 내놨다. GS리테일이 보유한 편의점 GS25, 슈퍼마켓 GS더프레시 등 1만6000여 매장에서 발생하는 유통기한 임박상품을 지역 기반 생활 플랫폼 당근마켓과 연동해 할인판매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최대 60% 할인가에 각 편의점, 슈퍼마켓에서 ‘땡처리 상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몰러드는 라스트오더 수요에 접근성 높은 모바일 경로 설계는 필수다. GS리테일의 경우 당근마켓 앱에서 ‘GS마감할인’을 검색하면 현재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매장과 구매 가능 상품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마트24 역시 스타트업 미로와 손잡고 라스트오더 서비스를 진행 중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식용유 대란 오나** 17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일 기준 식용유 가격은 1년 전보다 33.8% 상승했으며 국제 밀 가격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후 20% 이상 급등,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의 한 식자재 도매상에 식용유와 밀가루가 쌓여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 한국콜마, 전세계 ‘콜마’ 주인 됐다

**상표권 인수... 해외사업 속도**



한국콜마가 창립 32주년만에 콜마(KOLMAR) 글로벌 상표권을 인수하며 전세계 콜마 브랜드 주인이 됐다. 이를 계기로 해외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한국콜마홀딩스는 콜마(KOLMAR) 원조기업인 미국콜마로부터 ‘KOLMAR’ 글로벌 상표권을 100% 인수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장품 업계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글로벌 본사 브랜드 상표권을 인수한 건 처음이다.

비슷한 사례로는 2005년 성주그룹이 독일 글로벌 패션 브랜드 MCM을 사들이고, 2007년 휠라코리아가 글로벌 휠라 브랜드 사업권 인수가 좁지만, 한국콜마는 브랜드 상표권을 사들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이번 상표권 인수를 통해 한국콜마는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KOLMAR’ 브랜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 현지 진출시 상표권 관련 절차를 위한 기간이 줄어드는 만큼 글로벌 사업 확장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현재 한국콜마는 화장품 ODM(생산자 개발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자체 브랜드가 없다. 북미시장에서는 2016년 인수한 미국 화장품 ODM업체 테크놀러지앤드패키징(PTP)과 같은해 11월 사들

인 캐나다의 CSR로 해외 사업을 벌인다. 해외 현지 사업 파트너를 찾는 과정에서 글로벌 인지도가 높은 ‘KOLMAR’를 사용할 수 있어 사업 확장에 유리하게 작용하게 됐다는 의미다.

상표권 인수 시너지를 내기 위해 한국콜마는 우선 테크놀러지앤드패키징을 ‘KOLMAR USA’로, 캐나다의 CSR을 ‘KOLMAR CANADA’로 법인명을 변경해, 북미 지역 고객사 확대를 위해 KOLMAR 브랜드력을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중국과 미국 법인 매출은 2014억 원으로 전체 매출(1조 5863억 원)의 13%에 달한다. 이 가운데 미국과 캐나다 법인에서 벌어들인 매출은 647억 원이다.

한국콜마는 현재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비즈니스 허브로 연내 가동을 목표로 미국 뉴저지에 ‘북미기술영업센터’를 건립 중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동남아와 중동 시장 개척을 위한 거점지지도 올해 법인 설립을 목표로 싱가포르에 준비중이다. 화장품 사업을 시작으로 의약품, 건강기능식품까지 사업 영역을 점차 넓혀갈 계획이다.

남주현 기자 jooh@

## 운동하러 마트로? 제타플렉스 잠실점 ‘풋살 경기장’

제타플렉스 잠실점 옥상에 약 1300㎡(400여 평) 규모의 ‘풋살 경기장’이 문을 열었다고 17일 밝혔다. 소비자와의 소통과 공유가치를 담은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오프라인 고객 경험을 제공하고자 하는 롯데마트의 새로운 시도다.

제타플렉스 잠실점은 마트 1층의 70% 공간을 활애한 보틀병커와 함께 다양한 와인을 시음할 수 있는 ‘테이스팅탑’이라는 파격적인 공간을 선보여 고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는 ‘미니축구’라고 불리는 ‘풋살 경기장’을 오픈한다. 최근 예능프로그램 여자축구가 인기를 얻으면서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풋살을 즐기는 고객

들이 늘어나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했다. 롯데마트는 이처럼 오프라인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콘텐츠로 고객에게 다가가고자 한다.

이번에 선보이는 ‘풋살 경기장’은 KS인증 친환경 인조잔디, LED조명과 지역주민을 배려한 빛가림막 및 안전펜스 등 우수한 품질의 시설물을 갖추고 있다. 유소년 축구사관학교라고 불리는 대청U12코치의 교육과정을 적용해 운영상의 질도 높였다. 더불어, KFA(대한축구협회) 인증 체육지도사 코치진과 혹사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대비해 인명구조 자격증, 스포츠마사지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이



상주한다. 제타플렉스잠실점의 ‘풋살 경기장’에서는 매주 토요일마다 유소년축구교실이 무료공개수업으로 진행되며, 의무휴업일이 아닌 격주 일요일마다 ‘아빠와 함께하는 축구교실’과 ‘엄마와 함께 하는 힐링요가’ 수업도 진행해 지역주민들과의 소통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김혜지 기자 heyji@

<오세훈>

<송영길>

# 뭉 “타워팰리스 같은 임대주택” 宋 “1주택자 종부세 폐지”

## 서울시장 후보 ‘부동산 공약’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강 구도를 펼치고 있는 서울시장 후보들이 부동산 민심 잡기에 나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집값 안정’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내세우고 있다.

오 후보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호흡을 맞춰 집값 안정화에 힘을 쏟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오 후보는 12일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출범 후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으로 부동산이 불안정하게 될 것을 우려해 지금은 속도 조절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원 장관과 자주 소통하면서 ‘지금 국면은 신중해야 할 타이밍’이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4·7 보궐선거에서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던 때와는 달린 모습이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과열을 우려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내년 상반기로 연기하는 방안

뭉, 평수 확대 등 임대주택 고급화 사업성 떨어져도 ‘신통기획’ 추진 “집값 안정화 위해 정부와 소통”

宋,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 완화 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폐지 “稅 완화, 서민 주거안정 뒷받침”

을 검토 중이다. 특히 오 후보는 ‘임대주택 차별화’에 방점을 찍고 있다. 오 후보는 “임대주택을 민간 분양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로 지어 누구나 살고 싶고, 누구나 부러워하고 누구나 자부심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며 “새로 짓는 임대아파트들을 타워팰리스처럼 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재개발·재건축·신속통합기획 확대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 모



오세훈 ‘집값 안정’

- 서울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 재개발·재건축·신통기획 확대
-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모아주택·모아타운 추진
- 환영받는 청년주택
-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추진

## 서울시장 후보 주요 부동산 공약

‘세제 완화’ 송영길

- 1주택자 종부세 폐지
-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액 6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
- 일시적 2주택자 및 농촌·저가주택을 보유한 2주택자 종부세 중과 배제
- 재산세 상한 최고세율 110%로 조정
- 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폐지

아타운 추진 △환영받는 청년주택(스마트 2030)으로 대변신 △3대 거주형 효도주택 공급 등 서울 5대 주택공약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개발·재건축은 사업성이 떨어져 소외됐던 지역도 신속통합기획에 따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송 후보는 부동산 세제 완화를 주요 기치로 내걸었다. 송 후보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과도한 세금 부담은 줄이고, 시장을 존중하겠다. 합리적인 부동산 정책 대안을 제시해 서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하겠

기준을 1주택자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 원으로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출 수 있는 해결책으로 ‘누구나집’ 2만 가구를 소득이 낮은 무주택자에게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집은 신혼부부 및 최초 주택 구매자가 집값의 10%만 지급하면 10년간 반값 임대료로 살다가 10년 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임대주택을 늘린다고 하지만 공급 비중 자체가 여전히 적은 편이어서 고급화를 추구하면서 공급까지 늘릴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누구나집 제도는 건설사 입장에서 이익이 적기 때문에 참여율이 높지 않아 민간 사업자를 사업으로 끌어들이 유 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동욱 기자 toto@

<마포·용산·성동>

<서초·강남·용산>

# “거래만 되면 어김없이 신고가”... 마용성 넘어 ‘서강용 시대’ 열리나

## 용산 집값 7주 연속 오름세

“거래만 된다고 하면 신고가를 쓸 정도로 호기가 올랐어요. 대통령이 용산으로 온 만큼 앞으로 재개발·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많아요.”(서울 용산구 A공인 관계자)

용산구 아파트값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다. 재개발·재건축이 기대되는 구축 아파트는 물론 정비사업의 대상이 아닌 신축 아파트도 함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교통체증과 집회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결국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다.

17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값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9일 기준) 용산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0.04% 올랐다. 강북 14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용산구만 증가세를 보였다. 나머지 13개 구는 하락하거나 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는 3월 28일 조사에서 0.01% 상승 전환한

지난주 0.04% 올라, 강북서 유일 이촌동 ‘한강맨션’ 닷새만에 5억↑ 정비사업 속도...매수문의도 늘어 “한동안 아파트값 강세 이어질 듯”

이후 7주 연속 오름세를 기록했다. 용산을 제외하고 서울 내에서 아파트값이 7주 연속 오른 지역은 서초구와 강남구뿐이다.

한국부동산원은 지역개발의 기대감이 용산 아파트값을 끌어올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이촌동 ‘한강맨션’ 전용 87㎡형은 지난달 26일 38억 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달 21일 33억3000만 원에 신고가를 쓴 지 닷새만에 약 5억 원이 올랐다. 이태원동 ‘청화1’ 전용 142㎡형도 지난달 22일 26억 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같은



17일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강맨션’에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는다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평형이 지난해 6월 22억8000만 원에 신고가 거래된 것에 비해 3억2000만 원이 올랐다.

새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 기조에 따라 도시정비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모양새다. 용산구청에 따르면 이촌동 ‘우성아파트’는 13일 리모델링조합 설립을 인가받았다. 다만, 지역 개발 기

대감에 따른 호기 상승이 오히려 거래절벽을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용산구 이촌동 A공인 관계자는 “한강맨션이나 왕궁, 삼익아파트 등의 재건축 소스가 퍼지면서 강남 쪽에서 매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도 “매물이 많지 않고, 호기와 매수 희망가 간 차이가 커 거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촌동 B공인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용산은 전통적인 부촌이 많아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도 다른 지역처럼 매물이 많이 나오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재건축·재개발 호재에 따라 당분간 용산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용산은 인프라가 밀집해있어 사람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건축 호재가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시세를 견인하는 측면이 있고, 신축 아파트들도 일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용산 시대’라고 해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라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한 부분이 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정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지만, 한동안은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 김상영 수습기자 ksy22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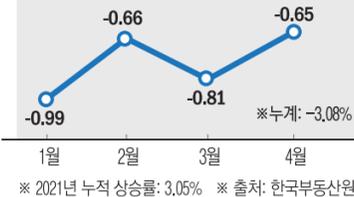
# 세종 올해 아파트값 3% 뚫... 하락률 전국 1위

## 입주물량 폭탄에 집값 급등 피로감 행정수도 이전' 차질 우려도 한몫

세종시 아파트값 내림세가 심상찮다. 올해 세종시 아파트값 누적 하락률은 3.08%로 전국 집값 하락률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아파트값 누적 상승률(3.05%)을 모두 반납하고 집값 하락으로 돌아선 곳은 전국에서 세종시가 유일하다. 과도한 입주물량과 2020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계속된 집값 급등의 피로감뿐만 아니라 정권 교체로 행정수도 이전 정책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집값 내림세가 가파른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4월 세종시 아파트값은 0.65% 하락했다. 3월(-0.81%)보다 하락 폭이 줄어들었지만, 올해 전국 기준으로 하락률 1위 기록을 넘겨달까 이어졌다. 세종시 아파트값 약세는 대구와 비교해도 도드라진다. 대구는 공급 폭탄과 미분양으로 집값 약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대구 아파트값은 0.63% 떨어

## 세종시 월간 아파트값 (단위: %)



어져 올해 누적 2.05% 하락을 기록했다. 반면 세종시는 올해만 3.08% 하락해 대구보다 더한 집값 약세를 보였다.

세종시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도 속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세종시 고운동 가락19단지과라곤 전용면적 84㎡형은 14일 5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 지난해 8월 신고가인 7억4000만 원보다 1억6000만 원 떨어진 금액이다. 소담동 세종중흥S클래스 리버뷰 전용 84㎡형 역시 지난해 3월 신고가 10억3000만 원보다 2억7500만 원 하락한 7억5500만 원에 1일 손바뀜됐다.

이렇듯 세종시는 아파트값 단기 급등 이후 ‘롤러코스터’ 급락을 겪고 있다. 세종시는 2020년 아파트값이 44% 이상 상승하면서 집값 상승률 전국 1위 기록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집값 급등 피로감에 입주 물량 폭탄이 떨어지면서 집값이 계속 하락 중이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 기준으로 세종시 아파트 적정 입주 물량은 연간 1890가구 수준이다. 하지만 지난해에만 7668가구가 입주를 마쳤고, 올해 2284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이 밖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행정수도 이전 정책도 바뀔 수 있다는 시장 불안감도 집값 하락을 부채질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세종시의 경우 2020년 행정수도 이전 이슈로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세종시가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서울이나 대전 등 외지 투자자가 진입하기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집값 약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 몇 채부터 다주택자? 48% “3채” 44% “2채”

## 국토연구원, 6680가구 설문 57% “지역별로 기준 달리 적용해야”

국민의 절반가량이 ‘다주택자’를 3주택 이상 보유자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절반이 넘었다.

17일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부동산시장 조사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1월 일반 가구 6680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을 몇 채 이상 보유할 경우 다주택자로 보고 세금 부담을 높여야 하는지’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48.3%가 ‘3채’라고 답했다.

‘2채’부터 다주택자로 보고 세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답변도 44.2%에 달했다. ‘4채’와 ‘5채’라는 응답은 각각 3.0%였고, ‘6채’라는 답변도 1.5%였다.

지역별로 3채라는 응답은 충북(55.5%)에서 가장 높았다. 충북에 이어 △울산 54.9% △전남 54.0% △전북 52.7% △인천 51.5% 등 순이었다. 2채라는 답변은 서울(50.4%), 광주(49.3%), 대전

(47.7%) 등에서 높게 나타났다.

부동산 중개업소 2338곳을 대상으로 같은 질문을 던진 결과, ‘3채’라는 응답률은 65.3%, ‘2채’라는 응답이 20.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77.5%), 충남(75.2%), 전남(74.5%) 순으로 ‘3채 이상 다주택자’란 응답률이 높았다.

‘세 부담을 높이기 위한 다주택자 기준을 지역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설문에는 일반 가구의 56.7%는 ‘아니다’라고 답했고, 43.3%는 ‘그렇다’고 답했다. 중개업소의 경우는 ‘아니다’가 66.0%, ‘그렇다’가 34.0%로 조사됐다.

권건우 국토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올해 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의 기준이 되는 다주택자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놓고 관심이 높아 설문 조사를 기획했다”며 “고가의 부동산이 많은 서울과 지방 광역시에서는 상대적으로 3채 응답이 많았고, 저가 부동산이 많은 지역에서는 2채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박민용 기자 pmw7001@

# 학교 밖 청소년 80% “교통비 지원·건강검진 원해요”

**여가부, 실태조사 결과 발표**  
자퇴 시기 고등학교 57% 최다  
“그만두고 검정고시 준비” 79%  
“부모 지원 못 받고 취업도 난항  
최소한의 운신 비용 도움 필요”

“부모님과 관계가 좋지 않은 학교 밖 청소년은 용돈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고, 잘 다니던 학교 그만두고 돈을 들여서 학원을 다니려 하냐는 말도 들어요. 그렇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 아이들 입장에서 최소한의 운신을 할 수 있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8명이 ‘교통비 지원’을 원한다는 여성가족부 발표를 두고 김희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이같이 말했다. 17일 여가부가 발표한 ‘2021 학교밖 청소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학교 밖 청소년이 가장 원하는 정책은 ‘교통비 지원(84.0%)’이었다. 이어 ‘건강검진(79.3%)’, ‘진학정보제공(78.4%)’, ‘검정고시 준비지원(78.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교통비 지원’ 항목은 직전 조사인 2018

년에는 없던 문항이다. 지자체가 청소년층에 포인트를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대전광역시 ‘꿈키움수당’, 경상북도 ‘동행카드’가 대표적인 지원이다. 경우에 따라 학원비 지불, 편의점 이용 등도 가능하다. 김 선임연구원은 “학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가거나 검정고시를 접수하려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는 건 아이들이 집 밖으로 나와 본인 진로를 위해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짚었다. 학교를 그만두는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56.9%로 가장 많았다. 그만두는 이유는 ‘학교에 다니는 게 의미 없어서’가 37.2%

로 가장 많았다. 다만, ‘다른 곳에서 원하는 것을 배우려고(29.6%)’, ‘심리정신적인 문제로(23.0%)’ 등 다양한 이유가 존재했다. 학교를 그만둔 뒤 하는 일은 ‘검정고시 준비(78.9%)’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만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내일이룸학교 등 유관기관의 보호, 관리를 받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의 완전한 바깥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에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

밖청소년지원과 박수미 사무관은 “청소년 본인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당사자 정보가 넘어오지 못한다. 모집단을 파악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부터의 무교육단계인 초, 중학교 청소년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아도 학교 판단에 따라 학교밖지원센터로 정보를 넘겨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이후 대상을 고등학교 생으로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전국 9세 이상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 3291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실시했다. 박꽃 기자 pgot@



“이제 대면축제 즐길 수 있어요” 대학가에 축제 시즌이 돌아온 가운데 17일 경기도 용인시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캠퍼스에서 열린 ‘2022 대동제 #Spring cooler’를 찾은 학생들이 물놀이를 하며 즐거워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대면 방식으로 바뀐 축제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진행된다. 조현옥 기자 gusdnr8863@

## ‘검수완박 국면’이 제기 됐나 ‘언론 프렌들리’로 변한 검찰

공식·비공식 접촉 서서히 늘려  
‘형사사건 공개금지’ 변화 예상  
대언론 정책도 새국면 맞을 듯

정권 변화에 발맞춰 검찰 대언론 정책의 변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검사와 기자 접촉이 사실상 완전 봉쇄됐던 과거와 달리 검찰-언론 관계가 소위 ‘해빙기’를 맞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법조계와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의 대언론 정책이 달라지고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국면을 계기로 검찰은 언론과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늘리는 모습이다. 실제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 전인 지난달 27일 대검찰청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었다. 22일에는 예세민 기획조정부장이 브리핑을 진행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도 브리핑을 여는 등 언론과 접촉하며 여론전을 폈다. 이 과정에서 검찰 출입기자단 사이에서는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다 검수완박 때문에 소통을 늘린 것 아니냐”는 비판적 목소리도 나왔다. 기자단이 대언론 정책을 잇달아 비판하자 검찰은 “지난 몇 년간 공보준칙 변화로 많은 제약이 있었고 소극적일 수밖에

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앞서 법무부는 2019년 10월 30일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 훈령을 발표하면서 전문공보관 외에 검사, 수사관이 기자 등 언론기관 종사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했다. 수사 중 혐의사실과 수사 경위, 수사상황을 비롯해 형사사건 내용 공개를 차단한다는 취지였지만 언론사 보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출범도 검찰 분위기를 변화시킨 요인이다. 대대적인 인사이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 장관도 후보자 시절 취임 후 문재인 정권 하반기에 무너진 인사 원칙을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사의를 표명하고 고검장들의 자리를 메우기 위한 인사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금도 언론과의 소통을 부담스러워 하는 분위기가 팽배하지만 법무부 장관 취임 후 인사가 날 수 있다는 생각에 경계심이 전보다 허물어진 상태”라고 말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도 변화가 예상된다. 규정이 바뀌면 검찰 대언론 정책도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홍인석 기자 mystic@

## 법원 “두산건설, 과징금 4.3억 납부는 정당”

공정위 상대 납부 취소소송 패소  
“입찰담합으로 경쟁 줄인 점 위법”

두산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두산건설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과징금 4억2800만 원 납부 명령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두산건설과 공정위 모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법원 판단은 확정됐다. 두산건설은 2013~2016년 서울지방조달청과 인천지방조달청이 발주한 관수레미콘 일반 경쟁 입찰에서 투찰물량 배분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해 71억 4269만 원의 매출을 얻었다. 공정위는 “두산건설이 주도한 공동행위

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고 이로 인한 경쟁질서 저해 효과가 중대하다”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다만 △관수레미콘 단가가 민수에 비해 낮은 점 △건설경기 등 외부요인이 가격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레미콘 특성상 제한된 경쟁이 일어나는 점 △낙찰물량과 실제 발주량이 일치하지 않는 점 △수도권에 한해 예측 수요량의 20% 내에서 일반 경쟁입찰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5% 부과 기준을 적용했다. 또한 두산건설이 담합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는 이유로 20%를 추가로 줄였다. 두산건설은 “희망수량 최저가 낙찰방식이었기 때문에 조달청 발주 물량 범위 내에서 업체 간 투찰물량을 배분하는 합의만 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100% 낙찰받을 수 있었다”며 “가격에 대해 별도 논의·합의가 없어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며 과징금 부과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두산건설과 합병한 회사 A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

력을 포함해 과징금 가중 사유로 삼은 것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두산건설 등 17개사의 합의가 없었다면 최대 투찰수량으로 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했을 것”이라며 “입찰담합으로 경쟁을 줄인 점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정위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2012년 이후 중견 레미콘사가 참여할 수 있는 일반 경쟁입찰제로 바뀌어 경쟁이 활성화 됐음에도 두산건설의 공동행위로 인해 평균 투찰률에 별다른 변동이 없다”면서 경쟁 제한성이 미미하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합병 전 회사의 과징금을 함께 부과하는 것은 문제라는 두산건설 측 주장에 대해서도 “회사합병이 있는 경우 피합병회사의 권리·의무는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합병으로 인해 존속한 회사에 모두 승계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예지 기자 sunrise@

## 서울시,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 방면 철거

내일부터 교통 전면통제

서울시는 선유고가차도(사진) 양화대교 방면 철거로 이달 19일부터 11월 말까지 이 구간을 전면통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선유고가차도를 철거하고 평면교차로를 조성해 주변 지역 경제 발전 및 도시 경관 회복을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이 구간을 통과하는 차량은 주변 도로로 우회 통행하고, 운전자는 감속 및 안전전조등과 통제 요원의 교통 안내에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선유고가차도 양화대교방면을 이용할 시민은 평면교차로가 조성된 경인고속도로 입구 교차로 1·2차로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으면 된다. 신월IC→강북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국회대로를 이용하여 이대목동병원 앞에서 양평로로 우회 △화곡고가사거리 또는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오목로를 이용하여 당산역 방면으로 우회 △신월IC에서 신월여의지하도로를 이용하여 마포대교 방면으로 우회하면 된다. 강북→강서 방면으로 운행하는 차량은 양화대교에서 노들로를 이용해 당산역 방면으로 이동 후 양평로를 이용해 목동 방면으로 돌아야 한다. 선유고가차도 여의도 방면은 약 6개월 만에 철거가 완료돼 19일 평면교차로가 개통될 예정이다. 김해빈 수습기자 chaebi@

## 檢, 尹대통령 고발 사건 무더기 각하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 사건들을 무더기로 각하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부패·강력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운동(사세행)이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 5건을 각하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140여억 원을 자의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한 것이다. 또 당시 감사원장이던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월성1호기 조기 폐쇄 표적 감사를 진행하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당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도 각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강범구 부장검사)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대검 검찰부의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했다며 사세행이 고발한 사건도 각하했다.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검찰 등 수사기관은 윤 대통령의 범죄 혐의점을 발견해도 재임기간 중 기소할 수 없다. 이수진 기자 abc123@

#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오픈... '제2 백종원' 키운다

# 카레를 좋아하는 박인하(가명) 씨는 시행착오 끝에 나만의 레시피를 완성했다. 카레 하나만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었지만 외식 관련 경험이 없어 창업하기 두려웠다. 청년쿡 비즈니스센터에서 '공유주방 배달 창업' 과정을 개설했다는 소식을 듣고 필수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쌓고 싶어 지원했다.

건대입구역 인근 259㎡ 규모 조성  
오픈키친·촬영 스튜디오 등 갖춰

'공유주방 배달 창업' 과정 개설  
전문가 브랜딩·디자인 등 지원

에 조리할 수 있도록 화구 7개, 개수대 4개가 설치돼 있었다. 프라이팬·칼 등 장비와 도구들도 다양하게 구비돼 있다.

센터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이론 교육과 실전적인 조리 실습을 통해 준비된 외식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운영을 맡은 마이샵온샵 최대현 대표는 "음식의 기본은 맛과 조리 능력"이라며 "조리 능력을 강화하는 소규모 클래스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다른 외식업 창업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공유주방 배달창업' 과정을 개설하



9일 '청년쿡 비즈니스센터'에서 진행된 오리엔테이션에서 참가자들이 주방 시설을 둘러보고 사진제공 서울시

고 청년 예비창업자 15명을 선발했다. 이들은 8월까지 센터에서 창업을 위한 이론과 실습교육을 받는다.

최 대표는 "외식 창업을 육성하려면 다른 창업 교육 기관과는 달리 주방 시설이나 특화된 교육이 설계되어야 한다"며 "이런

에 그런 부분을 고려한 센터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센터는 기존 외식 창업자 육성 지원사업과 차별화된 지원에 나선다. 우선 기수별로 배달창업 등 창업 주제를 정해서 심층적인 역량을 갖춘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한 현장체험을 통해 실전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우수 실습생에게는 본인이 창업을 희망하는 아이템과 유사한 업종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창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 브랜딩과 디자인도 지원한다. 전문가가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고 도움이 되는 피드백을 주는 '모의 투자설명(IR) 데모데이', 컨설팅 결과로 탄생한 시제품에 대한 검증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맛 테스트 대회' 등 창업 전 최종 준비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수료자가 민간에서 운영 중인 배달형 공유주방에서 실습을 희망할 경우 단기 임대, 보증금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도 부여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청년 외식 창업가를 육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은평 기자 pepe@  
김재빈 수습기자 chaebi@

##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철거 돌입

오페라하우스 등 문화공간 조성

서울 성동구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14일부터 본격적인 철거작업에 들어갔다고 17일 밝혔다. 이 자리에는 오페라하우스 등 복합문화시설이 조성된다.

구에 따르면 삼표산업은 레미콘 생산에 주요한 시설인 배지플랜트 5호기 철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집진설비를 분리, 제거했다.

시멘트 분말 분진을 필터로 걸러내 배출하는 집진설비는 레미콘 플랜트 가동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다. 집진설비 제거는 레미콘 생산의 실질적 중단을 의미한다.

삼표산업은 이번 주말까지 5호 배지플랜트 전체를 철거하고, 나머지 1~4호기는 6월 말까지 철거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44년 여간 운영되며 산업화 시기 레미콘 공급이라는 소명을 수행한 '삼표레미콘 공장'은



14일 철거를 시작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 사진제공 성동구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된다.

구는 이 일대를 문화·관광타운으로 조성한다. 최근 발표한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를 비롯해 서울숲내 승마훈련원, 방문자센터 등 유휴부지를 활용해 청년층을 위한 과학미래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과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관광 랜드마크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박은평 기자 pepe@

## 코로나 이후 가맹·예술 분야 '불공정 피해' 급증

공정거래상담센터 실적 분석  
상가임대 관련 4.7만건 '최다'

코로나19 이후 서울에서 가맹·유통 및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의 불공정 피해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17일 서울시가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실적을 분석한 결과 최근 3년간 상담실적은 총 5만 5404건으로 조사됐다. 이중 상가임대차 관련 상담이 4만 6770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지난해 상담실적을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한 결과, 가맹·유통(209건→298건), 문화예술(90건→150건),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91건→128건), 소비자 분야

(1697건→2359건)에서 상담 건수가 각각 증가했다.

가맹·유통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감소로 사업을 중단하려는 가맹점주와 본부 간 분쟁 증가, 프랜차이즈 분야에 청년 창업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줬다. 문화예술 프리랜서 분야는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약 1조 원 규모로 성장한 웹툰 시장에 신인 작가들이 대거 진입하면서 계약서 검토, 해외 유통권 등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수요가 증가했다. 반면, 상가임대차(1만7097건→1만5043건), 대부업(394건→378건) 등 상담 건수는 감소 또는 정체 상태를 보였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및 노동 상황이 변화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예상치 못한 피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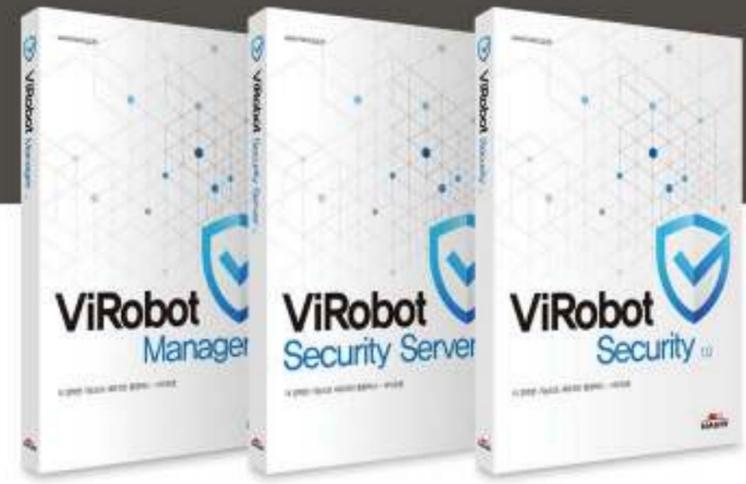
가 발생할 것에 대비해 센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모든 분야의 상담과 구제는 변호사, 공인중개사,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가 일대일 맞춤형으로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상담 방법은 대면, 온라인, 전화, 화상 등 시민들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한편 센터는 △상가임대차 △대부업 △가맹·유통 △문화예술 프리랜서 △단계 △선불식 할부거래업(상조업) △소비자 등 7대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피해상담과 구제를 지원하고 있다.

한영희서울시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올해는 예방부터 상담·구제·사후관리에 이르는 전반적인 서비스를 강화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재빈 수습기자 chaebi@

www.hauri.kr

# “ 새로운 바이로봇으로 보안을 강화하다 ”



**더 강력한 기능으로 새로워진 통합백신 - 바이로봇**

- 듀얼엔진과 행위기반기술이 적용된 통합보안솔루션 - 바이로봇 시큐리티 1.0
- 다양한 보안위협으로부터 서버를 안전하게 보호 - 바이로봇 시큐리티 서버 1.0
- 조직내 백신 및 보안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 바이로봇 매니저 1.0

(주) 하우리 | 서울시 동작구 만안로 104 | 대표전화 02-3676-1100 

암보험,  
시그니처가 될 터라

# SIGNATURE

한화생명이 암만큼은  
확실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진심을 담아 만들었습니다

한화생명의 시그니처가 될 암보험  
지금 시작합니다

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무)



[www.hanwhalife.com](http://www.hanwhalife.com)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 2022-02013호(2022-04-12 ~ 2023-04-11) 준법감시인확인필 CS 22-04-015

암보장 개시일은 가입 후 91일부터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본 상품은 비갱신형 또는 갱신형으로 선택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갱신형 상품으로 가입 시 20년만기 갱신 또는 30년만기 갱신 중 선택 가입할 수 있으며 최대 100세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계약의 소멸 시 계약을 갱신할 수 없습니다.** 기존 계약 해지 후 신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품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칸이 속삭인다, 박찬욱·송강호의 시간이 됐다고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제75회 칸영화제가 17일(현지 시각) 개막했다.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니스(NCE) 공항은 영화제 참석을 위해 각국에서 방문한 영화인들과 취재진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공항은 물론 길거리 곳곳에 영화제를 알리는 홍보 포스터가 붙어 영화제의 열기를 후끈 달구고 있다. 날씨 또한 따뜻하고 바람까지 선선해 마치 칸 영화제를 반기는 듯 하다.

칸 영화제는 코로나19 발발로 2020년 개최가 무산된 바 있다. 2년만인 지난해 개최했지만 매일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대로된 행사로 개최되지 못했다.

영화제 상징인 팔레 드 페스티벌(Palais des Festival) 부근은 쏟아진 인파와 차량들로 분주했다. 칸 영화 관계자는 “올해 90개국 200개 이상 언론매체, 4000명 이상 기자들이 현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번 칸 영화제에서도 한류열풍을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한국영화도 모두 5편이 진출해 황금종려상과 남우주연상을 노린다.

우선 박해일과 탕웨이 주연으로 열린 박찬욱의 ‘헤어질 결심’이 경쟁 부

## ‘K무비의 도전’ 제75회 칸영화제 개막

박찬욱 ‘헤어질 결심’ 황금종려·‘브로커’ 송강호 남우주연 노려  
이정재 첫 감독 연출작 ‘헌트’ 비경쟁 상영...오광록 출연 佛영화도



문에 올랐다. 산 정상에서 추락한 한 남자의 변사 사건을 둘러싸고, 담당 형사 해준(박해일)과 사망자의 아내 서래(탕웨이)의 은밀한 관계와 욕망을 다룬 영화다.

박찬욱은 ‘올드보이’와 ‘박쥐’, ‘아가씨’에 이어 이번 영화로 통산 4번 경쟁 부문에 진출하는 기염을 토했다. 박찬욱은 칸영화제에서 ‘올드보이’로 심사위원대상을, ‘박쥐’로 심사위원상을 받은 바

있다. 칸영화제 최고 영예인 황금종려상은 박찬욱 감독 수상이 유력하게 점쳐진다. 봉준호 감독이 ‘기생충’으로 황금종려상을 받은 바 있다.

송강호, 강동원, 배두나, 이지는(아이유), 이주영 등 한국 유명 배우들이 대거 출연한 고레에다 히로카즈의 ‘브로커’도 경쟁 부문에 진출했다. ‘브로커’는 세탁소를 운영하며 근근이 생활하는 상현(송강호)과 베이비 박스 시설에서 일하

는 보육원 출신의 ‘동수(강동원)’가 한 아기를 몰래 데려가면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룬 영화다. 이른바 ‘가족영화 장인’으로 불리는 고레에다 히로카즈는 이번에도 남다른 가족 이야기를 들고 칸을 찾았다.

송강호는 이번 영화로 남우주연상 수상이 유력하다. 특히 송강호는 지난해 칸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 송강호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박찬욱과 함께 “받을 때가 됐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인 스타 반열에 오른 이정재의 첫 감독 연출작인 ‘헌트’가 비경쟁 부문 미드나잇 스크리닝에 이름을 올렸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자정 칸에서 최초 공개되는 ‘헌트’는 이정재의 인기로 힘입어 전석 매진 행렬을 기록 중이다.

한국영화는 아니지만 배우 오광록이 주연으로 출연한 프랑스 영화 ‘All the People I’ll Never Be(리턴 투 서울)’은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에 진출했다. 이외에도 문수진 감독의 ‘각질’이 단편 경쟁 부문에,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가 비평가주간의 폐막작으로 선정됐다. 칸=송석주 기자 ssp@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코로나 후 첫 해외 IR 실시 17일부터 2박3일간 싱가포르서

손태승(사진)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17일부터 2박3일간 싱가포르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첫 해외 IR(투자설명회)에 나선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년 만에 실시될 이번 해외 IR은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대형 자산운용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손 회장은 한국 거시경제의 현황과 함께 우리금융그룹이 지주사 전환 이후 달성한 재무적 성과는 물론, ESG(환경·사회·지배구조)와 디지털 분야의 비재무적 성과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특히 완전 민영화된 우리금융그룹의 중장기 비전과 주주 친화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 방안 등에 대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싱가포르 IR을 시작으로 6월 미주지역 IR가 예정돼 있다”며 “유럽, 홍콩 지역 등으로 IR 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내 투자자와의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들어 우리금융그룹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6%포인트 이상 크게 증가하며, 코스피 전반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4대 금융주 중 최고의 추가 상승률을 기록 중이다. 송영록 기자 syr@

##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에 한림병원 정영호 원장 선정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한미약품이 공동 제정한 제16회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수상자로 한림병원 정영호(사진) 병원장이 선정됐다. 정 병원장



에게는 상패와 상금 1000만원이 전달된다. 대한병원협회장 및 대한중소병원협회장을 역임한 정영호 병원장은 중소병원의 경영여건 및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힘써 왔다. 또한 국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의료기관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상식은 18일 베스트웨스턴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리는 제32차 대한중소병원협회 정기총회와 함께 진행된다.

2007년 제정된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은 지역사회 주민건강 향상과 보건의료 발전에 기여한 중소병원장 및 이사장을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송병기 기자 songbk@

## 프랑스 30년 만에 여성 총리 탄생

마크롱, 보른 노동장관 임명...“모든 어린 소녀들에게 영광 바쳐”

프랑스에서 30년 만에 여성 총리가 탄생했다.

16일(현지시간) 프랑스24에 따르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에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이날 노동부 장관 자리에 있던 엘리자베트 보른을 총리로 임명했다.

프랑스에서 여성이 총리직을 맡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첫 여성 총리는 에디트 크레송 전 총리로 프랑수아 미테랑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1991년 5월부터 1992년 4월까지 내각을 이끌었다.

그는 짧은 취임 기념사에서 “총리로 지명된 영광을 모든 어린 소녀들에게 바치고 싶다”며 “그들에게 꿈을 쟁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고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맞서기 위해 더 빠르고 강

하게 대응해야 하며 프랑스 구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보른 총리는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한 르네상스(전 암파르슈)에 2017년 합류하기 전 사회당에 있었다. 그는 마크롱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2017년 교통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당시 프랑스철도공사의 연금과 복리후생제도 개혁을 추진하다가 파업에 직면했으나 결국 법안을 통과시키고 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환경부 장관으로 일하며 자전차 친화 정책을 추진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노동부 장관으로 역임하며 실업률을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청년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치로 낮추는 데 성공했다.

정영인 수습기자 oin@



엘리자베트 보른 프랑스 신임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총리 관저 마티뇽에서 손을 흔들고 있다. 파리/로이터연합뉴스

## 부음

### 상공·국방장관 지낸 정래혁 前국회의장

9~11대 국회의원을 지낸 정래혁(丁來赫) 전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5시14분께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유족이 전했다. 향년 97세.



1925년 전남 곡성에서 태어난 고인은 광주서중, 일본 육사를 졸업했다. 1948년 특별 7기생으로 육사를 졸업한 뒤 육군본부 작전과장으로 6·25 전쟁을 맞았다. 대구 후퇴 시절 박정희 대통령과 앞뒷집에 살며 교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5·16 쿠데타에 참가하지 않았지만, 박 대통령의 지명으로 1961년 5월~1962년 7월 상공부 장관으로 일했다. 군에 복귀했다가 1968년 중장으로 예편했고, 한전 사장을 거쳐 1970년 국방부 장관에 기용됐지만 1971년 실미도 사건으로 옷을 벗었다. 이후 제9·10대 총선에 서울 성북구(민주공화당)에서 출마해 당선됐고, 1981년에는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담양·곡성·화순 지역구에서 11대 의원에 당선됐다. 11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에 선출됐다.

유족은 부인 주 숙씨와 사이에 4남1녀(정채하·정영준·정영하·정희숙·정진하씨)가 있다. 빈소는 강남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3호실, 발인은 19일 오전 7시,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 02-2019-4000

▲윤동식(한국선박물류대표) 씨 별세, 윤원섭(매일경제신문 편집국장)·지섭(부산금정동물병원장) 씨 부친상, 최지혜 씨 시부상 = 17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32호실, 발인 19일 오전 8시 20분, 02-3010-2000

▲손필현 씨 별세, 이재영(경기도의원)·제민 씨 모친상 = 16일, 성남시장례식장 2층 3호실, 발인 19일 오전 7시, 010-8954-1460

▲송영선 씨 별세, 황성원 씨 부인상, 황여름·겨울 씨 모친상, 김재용·손종수(매일경제TV 촬영기사) 씨 장모상 = 17일, 원자력병원 장례식장 3호, 발인 19일 오전 10시, 02-970-1288

##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펀드도 20% 수익 약속할 수 없어”

### 정태영 현대카드 부회장, 루나·테라 폭락에 ‘경고’

정태영(사진) 현대카드 부회장이 최근 한국산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USD(UST)의 폭락사태에 대해 어떤 펀드도 고수익을 약속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태영 부회장은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조를 모르기에 조심스러우나 투자 수익 또는 쉬운 말로 예치이자 20%가 어떤 뜻인가 하면 전 세계의 금융산업이 재편돼야 한다는 뜻”이라

고 말했다. 이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투자펀드도 이런 약속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테라폼랩스는 투자자가 스테이블 코인인 테라를 예치하면 루나로 바꿔주고 최대 20% 이율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았다. 테라는 루나의 공급량을 조절해 테라의 1개의 가치를 1달러에 맞추는 알고리즘을 사용했다.



이런 거래 알고리즘을 놓고 펀지 사기라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두 코인은 가상화폐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정 부회장은 “탑 플레어의 수익률이 몇 초 원 한정 자산 내에서 비용(fee)을 제외하고 10~15% 정도지만 이것도 약속하지 못한다”면서 “간단한 내용을 보면 상사가 아니라 특정 이벤트에 특정 고객에만 주는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봐야 하는 숫자다”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nova@

## 백악관, 베이조스 인플레이 대응 공격에 “노조 때문에 그러나?”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가 치솟는 물가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하자 백악관이 곧바로 노조 이슈를 거론하며 역공에 나섰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앤드루 베이즈 백악관 언론담당 부보좌관은 성명을 내고 “베이조스가

비판 트윗을 게재한 시점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을 포함한 노조 지도부를 만난 직후라는 게 놀랍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지금껏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했던 베이조스가 이례적으로 백악관에 직격탄을 날린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존 노조 지도부를 만나 격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초 아마존과 스타벅스의 노조 간부 등 노동계 인사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해 격려했다.

베이조스는 이날도 백악관의 성명과 관련해 즉각 반발했다. 그는 “논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노조 이슈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으며 부유층 역시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 인사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국정상황과장 이현우 △규제혁신1과장 김준민

◆기획재정부 ◇과장급 △부총리 비서실장 신중범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 김은영 △건강보험정책국 보험급여과장 정성훈 △ 의료보장관리과장 강준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장 남재현 △항만정책과장 이상호 △항만개발과장 김규섭 △항만안전재생과장 황상호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인사조직과장 지윤경 △기획조정관실 국제협력담당관 이은호 △인사혁신국 적극행정과장 예종원 △인사관리국 성과급여과장 안현식

◆제류원사이언스 △중앙연구소장 오준교  
◆법률신문 △부사장 이재열

유럽은 지금



김현정 동아대 국제전문대학원 교수

솔츠 총리는 다른 이슈로 전환되기 쉽지 않은 위기 국면에서 제대로 된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투명인간'이란 닉네임을 얻으며 자신의 정치 역량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메르켈른'이 긴 기간에 걸쳐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되었던 것처럼, 솔츠 총리의 '투명인간'도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은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력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

독일은 1990년 이데올로기 시대를 종식하며 통일국가를 이루었고, 이의 결과로 2000년대를 리드한 지도자를 얻었다. 동독 출신의 메르켈 총리는 2021년 퇴임 당시 무려 80%에 이르는 지지율에도 아름다운 퇴장을 선택하였다. 16년이라는 긴 재임기간만큼 메르켈의 리더십을 은유하는 다양한 단어들 등장하였으나, 그의 통치 방식을 통찰한 하나의 단어를 고르자면 '메르켈른(merkeln)' 즉 '메르켈하다'를 꼽을 수 있다. 2015년 독일 유명 사전출판사가 뽑은 신조어이기도 한 '메르켈른'은 한때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으로 통용되며 메르켈의 답답한 정치 방식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많은 위기에 직면하여서도 독일이 지향하는 주요 가치를 지켜내며, 미·중 패권경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감정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외교 균형을 맞춰낸 그의 '메르켈른'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도 다수의 국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자국의 이익을 지켜내는 그만의 대외정책 방식으로 이해된다. 또한 국내 정치에서 '메르켈른'은 천천히 모두와 함께하며 연대해 나아가고자 하는 의미로 재해석되었다.

현재 독일에서는 주정부의 지방선거가 진행되고 있다. 독일 내 가장 많은 인구를 보유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 지난 일요일 실시된 예비투표에서 야당으로 밀려난 기민당이 득표를 1위를 기록하였다. 정치적으로 큰 울림을 보이고 있는 독일의 지방선거 양상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유럽과 다수의 주요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정치적 스펙트럼의 양 극단 포퓰리즘 정당의 입지가 약화되었다는 점이다. 이웃나라 프랑스에서 지난달 치러진 대선에서도 비록 마크롱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했으나, 자극적이고 배타적인 국가이익을 추구하는 극우, 극좌의 지지율 확산이 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독일 내 극우인 독일대안당(AfD)과 극좌인 좌파당(Die Linke)은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독일 사회의 분위기는 원래부터 편견과 혐오의 표현을 지양하고 연대의 사회적 가치를 지지하는 성향으로, 정치적 갈등을 노골화하는 정당의 득세가 어려운 편이기도 하다. 게다가 양당은 4월 말 독일 연방 하원에서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보내는 데 대한 반대투표를 던진 정당이었다. 기

존 독일의 지방정부 선거는 해당 주의 교통편의, 교육정책, 지방산업의 발전방향 등 정책 우선 선거가 지향되었으나, 전쟁이라는 압도적 위기 시기에 대외정책에 대한 정당의 입장이 지방선거에도 큰 반향을 일으킨 것이다. 둘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선거에서 1위를 탈환한 기민당보다 더 승리한 측으로 평가받고 있는 정당은 녹색당이다. 녹색당은 무려 11.8%의 지지를 획득하며 연립정부 내 존재감을 드높였다. 프랑스의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좌파의 정치적 입지가 좁아지고, 기존 지지세력인 노동자가 떠나가는 이유를 고학력 엘리트들이 '브라만 좌파'가 환경, 불평등 등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거리가 먼 주제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라 분석한 바 있다. 독일의 녹색당 선전은 이러한 세계적 분위기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다. 셋째, 앞서 포퓰리즘 정당에 대한 평가가 대외 위기라는 변수에 영향을 받은 것과 같이 솔츠 총리 또한 위기관리 능력을 평가받고 있다. 시민-녹색-자민 3당의 소위 '신호등 연정' 출범 직후 솔츠 총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압도적 안보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위기 발발 초기에는 다양한 국내 이슈를 압도하는 대외 문제 발생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지도자에 대한 지지가 높았으나, 러시아의 침공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솔츠 총리는 '압도적 위기 국면에 갇힌 리더'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 외신과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이나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금수 조치를 적절한 시기에 결단력 있게 행하지 못한 집권당에 대한 평가가 지방선거에 반영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솔츠 총리는 다른 이슈로 전환되기 쉽지 않은 위기 국면에서 제대로 된 리더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미에서 '투명인간(invisible man)'이란 닉네임을 얻으며 자신의 정치 역량에 대한 불편한 시선을 받고 있다. 솔츠 총리의 리더십은 불안정한 국제무대에서 4명의 미국 대통령을 상대하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균형을 잃지 않았던 메르켈의 정치 스타일과 자못 비교된다. '메르켈른'이 긴 기간에 걸쳐 부정적 의미에서 긍정적 의미로 재해석되었던 것처럼, 솔츠 총리의 '투명인간'도 강한 목소리를 내지 않지만 은은한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력으로 재평가될 수 있을지 기로에 서 있다.

게임이론으로 세상 읽기

정대영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



지난주 NC 다이노스 야구단의 감독이 해임됐다. 성적 부진과 선수단 관리 문제 등이 도화선이 되어 결국 옷을 벗게 된 것이다. 2020시즌, 팀을 우승으로 이끈 감독을 이렇게 떠나보내는 것이 맞나며 의문을 제기하는 이들도 없지 않지만, 지난 시즌부터 상당 기간 감독 경질을 요구했던 팬들도 적지 않았다. 정치권도 인사 문제로 한참 시끄러웠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 중 일부는 후보 자리에서 사퇴했으며, 정부 출범 후 두 번째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점까지도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이 완료되지 못하였다. 한편에서는 국정을 방해하기 위하여 트집을 잡고 있다고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고 검증되지 못한 자를 임명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고 한다.

스포츠와 정치, 구단 운영과 국정 운영

판단이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이러한 판단의 차이가 발생하는 첫 번째 이유로 정보의 비대칭을 들 수 있다. 야구팀 감독은 선수들의 부상 정도와 잠재력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있는 반면, 팬들은 경기에서 드러나는 선수들의 플레이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준비·연습 기간에 있었던 일이나, 구단과 선수 간의 합의 사항 등에 대하여 자세히 알 길이 없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많은 경우, 대통령은 각료 후보자를 임명하기 전에, 그들의 능력과 잠재력뿐만 아니라 범죄이력,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이르기까지 많은 정보를 수집한다. 반면 대중은 임명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정보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다. 청문회 및 기자회견에서 언급되는 이야기를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받는 것이 대부분이다. 두 번째 이유는 목적함수의 차이이다. 구단은 시즌 최종 성적을 최고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긴 시즌을 운영해 나간다. 때문에 부진한 선수에게 기회를 주기도 하고,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에게 체력 안배를 위한 휴식을 부여하기도

도 한다. 반면 팬들은 특정 경기의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여, 한 경기의 승리를 위해 좋은 선수만을 기용하기를 바라는 경향이 있다. 국정 운영자의 목표도 상대적으로 장기적이어서, 임기 동안 운영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인 경우가 많다. 반면 대중은 '각료의 임명'이라는 사건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 때문에 그들의 능력보다는 도덕성을 근거로 하는 자격론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이유로 누군가는 정치인과 대중의 차이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에 비유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들은 대중을 쉽게 무시할 수 없다. 아니 그러서는 안 된다. 팬들을 무시하고 변화를 거부하는 구단이 발전해 나갈 수 없는 것처럼, 대중을 무시하고 의견 수렴에 인색한 정치인은 지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장기적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국정 운영을 계획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재를 선택했다 할지라도, 그 후보자가 국민의 눈높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면, 모범이 되어야 할 정치인이 불

법과 편법으로 가득 찬 인생을 보낸 사람이었다면,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그 선택을 재고해 보아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동시에 아무리 '옳은' 법의 제정이라 할지라도, 대중을 효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면, 그 법의 제정을 보류해야 할 필요도 있는 것이다. 정보가 부족한 아마추어의 단기적인 판단으로 읽힐 수 있는 대중의 비판이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고 도덕적인 기준을 바로 세우는 초석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반면 개인은 민주주의 사회 속 주권을 가진 주체이므로, 정치인으로서 아마추어 이기를 거부해야 한다. 대중이 정보의 부족을 극복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고민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통해 주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스포츠 구단이 팬들의 눈치를 보듯, 정치인들이 대중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갈 수 있게 하려면, 대중이 정치의 전문가가 되어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곧 지방선거일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티나 페이 명언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의견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그 의견은 보스가 되면 유기적으로 바뀝니다." 미국의 작가, 배우다. NBC방송의 간판 코미디 쇼 '새터데이 나이트 라이브' 수석 작가였던 그녀는 지미 펠론과 토크쇼 진행을 맡기도 했다. 검은 빨데 안경은 그녀의 트레이드마크다. 린지 로인과 레이철 매게덤스가 출연한 '퀵카로 살아남는 법'의 시나리오를 쓰고, 수학 선생님이로 직접 출연하기도 했다. 오늘은 그녀의 생일. 1970~. ☆ 고사성어 / 구어현하(口如懸河) 입에서 나오는 말이 흐르는 물과 같다. 거침없이 말을 잘한다. 또는 말재간이 매우 좋다는 뜻. 진서(晉書)에 나온다. 진(晉)나라 대학자 곽상(郭象)은 장자(莊子)와 노자(老子)의 학설을 즐겨 읽고 심층연구를 계속했다. 여러 차례 벼슬을 권하는 사람이 있었으나 모두 거절하고 학문 연구만을 낙으로 삼았다. 지식이 풍부해 모든 일의 이치를 명쾌하게 설명했고 자신이 견해를 밝히길 좋아했다. 이에 당대의 명사 왕연(王衍)이 "곽상의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산 위에서 끊임없이 떨어지고 있는 물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聽象語如懸河瀉水注而不竭]"라고 격찬한 말에서 유래했다. ☆ 시사상식 / 스마트 아일랜드족 스마트폰과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 기기에 폭 빠져 고립된 섬(Island)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 이들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를 즐기며 서로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들과 온라인 공간에서 폭넓게 소통하고 서로의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도 공유한다. 그러나 정작 오프라인에서 사람을 직접 대면하는 자리에서는 의사소통을 잘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 고운 우리말 / 예제 없이 여기나 저기나 구별 없이.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이민재 / 산업부



쌍용차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J100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얼마 전 방문한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현장 직원에게 들었던 말이다. 또 다른 직원은 "신차(J100)에 대한 기대가 크다. 빨리 양산됐으면 좋겠다"며 기대감을 숨기지 않았다. 당시 'J100'이라는 프로젝트명으로 시험 생산되던 새로운 SUV 모델은 17일 '토레스'라는 이름으로 공개됐다.

쌍용차 임직원들은 토레스가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어온 쌍용차 부활의 신호탄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토레스라는 모델 하나가 이처럼 큰 기대를 받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모델이 시장에서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오랜 기간 쌍용차가 겪어온 어려움을 토레스를 통해 끝내고 싶다는 소망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쌍용차는 오랫동안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에디슨모터스와 인수합병(M&A)은 에디슨모터스

가 2743억 원에 달하는 인수대금을 납입하지 못해 결국 무산됐다. M&A가 난항을 겪는 동안 직원들은 허리를 졸라댔다. 직원들은 2019년부터 임금 삭감 및 복리후생 제도 축소, 노사 상생 협약 등 강도 높은 자구책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단체협상 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쟁의행위를 중지하기로 합의했다. 묵묵히 경영 정상화를 향해 걸어가는 쌍

용차의 새로운 주인 후보는 KG컨소시엄이다. 오랜 기간 자금난을 겪어온 쌍용차는 인수대금의 크기, 인수 이후 운영자금 확보 계획 등에 중점을 두고 새 주인 후보를 찾았다. 그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자산 규모 5조3464억원, 매출 4조9833억원인 KG그룹이 주도하는 KG컨소시엄이 M&A 공고 전 인수 예정자로 선정됐다. 어쩌면 쌍용자동차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선부르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쌍용차의 직원으로 일하고 싶다"던 직원들의 눈빛을 떠올려본다. 신차 출시와 새 주인 후보. 쌍용 정상화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본다. 2mj@

## 시진핑의 '위험한 도박'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위험한 도박'에 좌절과 불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시장의 가장 큰 골칫거리로 떠오른 것은 코로나19 확산을 전면 봉쇄하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다. 매일 공장 가동 중단과 인플레이션 압력 가중, 공급망 혼란 등 제로 코로나를 우려하는 기사가 쏟아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중국 경제지표도 심각하다. 수출과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 등 지표는 중국 경제가 코로나19 사태 초기인 2020년 초로 다시 후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제로 코로나는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사회 불안도 조성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봉쇄로 인해 식량난까지 벌어져 주민이 굶주림을 호소하고 원시시대처럼 물물교환하며 연명하는 장면까지 나왔다. 군인과 경찰은 항의하는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했다.

여전히 시 주석은 제로 코로나를 고집하고 있다. 사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가 되기는 한다. 중국 상하이 푸단대 연구진은 10일 보고서에서 제로 코로나를 중단하면 1억 명이상이 감염되고 사망자는 160만 명으로 미국보다 50% 더 많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많은 노인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 또 중국 사람들이 맞은 백신은 현재 가장 효과가 높은 것으로 입증된 화이자나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아니라 물백신으로 약명 높은 자국산이다.

올가을 당대회에서 3연임을 노리는 시

### 데스크칼럼

배준호  
국제경제부장



주석이 이런 악몽 같은 상황이 펼쳐질 위험을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제로 코로나를 펼치는 과정이 잘못됐다. 지금은 '위드 코로나'로 나아가고 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중국과 비슷하게 엄격한 방역정책을 취했다. 그러나 그 어떤 나라도 이렇게 강압적이고 폭력적이지는 않았다.

시 주석은 제로 코로나를 서구와의 이데올로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로 삼았다. 코로나 극복을 최대 치적으로 내세워 자신의 3연임 또는 장기집권을 정당화하고 중국의 시스템이 미국 등 서구권보다 우월하다고 강조하려 했던 것이다.

봉쇄로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가 썩대밭이 되고 베이징도 시시각각 불안이 커지는 지금 이런 전략은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 할 수 있다. 나라 전체의 문을 쾅쾅 닫아버리는 중국보다 더한 정책을 펼쳤던 북한도 현재 코로나19가 퍼져 난다.

시진핑의 위험한 도박은 제로 코로나 정책만이 아니다. 미국 안보 전문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실의 프레드릭 켈프 회장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전략적 브로맨스'를

배가하기로 한 결정은 시진핑 집권 9년 중 가장 위험하고 근시안적인 도박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푸틴의 군사적 철수나 실패 또는 정치적 축출을 초래한다면 시 주석의 운명도 위태로울 것이라고 켈프 회장은 경고했다.

케빈 러드 전 호주 총리도 "시진핑의 통제가 포괄적이지만, 완전한 것은 아니다"라며 "푸틴이 실패하면 그 여파로 중국 당내에서 리더십을 재고할 필요성을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

결국 어느 시점에 이르러 중국 공산당 엘리트들도 진지하게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다. "과연 시진핑의 집권을 연장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

당대회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3연임을 그대로 믿고 나갈 가능성이 좀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 주석이 단지 3연임만 하려고 위험한 도박들을 펼쳤을까. 궁극적인 목적인 장기집권이었을 텐데 당대회에서 자신의 후계자가 새롭게 떠오르거나 과거의 집단 지도체제가 부활하면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시진핑의 전임자인 후진타오나 장쩌민 전 주석도 많은 과오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이 시진핑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것은 장기집권 야욕에 중국과 전 세계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는 도박은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시 주석은 지금 당장 위험한 도박을 멈추는 것이 중국은 물론 그 자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다. baejh94@

### 시설

## 가팔라질 기준금리 인상, 부채위기 확산 막아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더욱 가팔라질 공산이 커졌다. 이 총재는 1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조찬을 가진 뒤 "물가가 얼마나 더 오를지 종합적인 데이터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 발언 후 국제금리가 급등하는 등 시장이 요동치자, 한은이 '원론적 입장'이라고 진화했지만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할 것임을 예고한다. 한은이 이달 26일로 예정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빅스텝의 금리 인상에 나서지는 않더라도, 4월에 이어 다시 0.25%포인트(p) 올리고 다음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있는 7월에도 연속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시장은 전망한다. 향후에도 추가 인상이 이뤄져 연말 기준금리가 현재 연 1.50%에서 2.25~2.50% 수준까지 높아질 것이라 예상된다.

최대 변수인 물가가 이미 심각한 상황이고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다. 4월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이 4.8%로 치솟은 데다, 곧 5%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다 보여진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와 원자재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 주요 도시 봉쇄는 공급망 차질을 심화시킨다. 여기에 식량생산 감소로 최근 인도의 밀 수출 금지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까지 겹쳐 물가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우리 금리정책에 큰 영향을 주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기준금리 인상속도가 매우 빠르다. Fed는 5월 초 빅스텝에 이어, 연내 2차례 이상의 연속적인 빅스텝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미국의 올해말 기준금리는 2.50~2.75%에 이를 전망이다. 우리 원화 환율상승과 함께 국내 물가를 계속 끌어올릴 수밖에 없다.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대규모 재정지출이 풀리는 것도 물가 부담을 키운다.

금리인상이 가속화하면 가장 위험해지는 것은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경제주체들이다.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가계와 기업에 심각한 타격이다. 작년말 기준 가계부채 1862조 원, 기업부채 2650조 원이다. 금리인상으로 늘어나는 이자부담은 집값 폭등으로 늘어난 '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청년층과 다중채무자, 취약한 자영업자들의 부실 위험을 높인다.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도 못 갚는 한계기업도 전체 상장기업의 40% 수준이다. 자칫 경제위기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들의 충격을 줄이는 것이 급선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을 내놓으면서 최대 30조 원 규모의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출채권을 매입해 만기 연장과 장기분할 등으로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도 낮춰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장기연체 부실자주의 채무원금도 감면할 계획이다. 금리 상승에 따른 부채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은 최대한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 노트북을 열며

구성현  
유통바이오부 차장



## 새벽배송, 포기해도 된다

코로나19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다. 산업계도 예외가 아니었고, 특히 유통업계는 어느 업종보다 많은 변화를 요구받았다.

비대면 쇼핑 시장 경쟁이 치열해지자 유통업계는 '배송혁신'을 금과옥조처럼 여겨 너도나도 뛰어들었다. '다음날 배송', '2시간내 배송', '새벽배송' 등 적자가 나든 말든 막대한 출혈경쟁을 벌였다. 결과는 대규모 적자로 이어졌다. 배송혁신을 주도한 이커머스 업체 중에서 흑자를 내는 곳은 1~2곳에 불과하다.

그러는 사이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기로 결정했다. 거리두기가 사라지고 외출이 자유로워지면서 예전만큼의 수요가 반겨주지 못하는 현실이 기정사실화하자 대형 유통사들도 새벽배송에서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다.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헬로네이처,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온 등이 최근에 새벽배송 포기를 선언했다. 롯데홈쇼핑의 새벽배송 '새로배송'도 종료된다.

새벽배송 시장이 급격한 성장세가 접혀지는 영역임은 확실해 보인다. 교보증권

에 따르면 새벽배송 시장 규모는 2018년 5000억 원에서 2020년 2조5000억 원, 올해는 9조 원까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럼에도 기업들이 발을 빼는 것은 막대한 비용 문제 때문이다. 새벽배송은 엄청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이다. 신선식품이 주력인 만큼 창고·배송차량 등 '콜드체인(냉장 유통)' 인프라를 갖춰야 한다. 배송원과 물류센터가 밤 시간에 돌아가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도 일반배송 대비 2배가량 높다. 이를 해결하려면 일장량의 '주문량'을 유지하는 '규모의 경제' 효과가 필요하다.

국내 유통사 중 아직 이 문제를 해결한 곳은 한 곳도 없다. 새벽배송 시장을 개척한 쿠팡이나 마켓컬리는 물론이고 SSG닷컴 등도 여전히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마켓컬리와 SSG닷컴의 지난해 적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늘었고, 유달하게 흑자인 오아시스마켓도 흑자 규모가 절반 가까이 줄었다. 이들은 상장을 앞두고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인프라 등에 투자를 늘리고 있어 결국 차진게임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출혈경쟁이 언제까지 가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끝까지 버티면 살아남을 것'이라는 희망, 어쩌면 '여기서 멈추면 죽을 것'이라는 절박함으로 버티고 있지

만 적자 행보를 영원히 계속할 수 없는 일이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새벽배송은 쿠팡, SSG닷컴, 마켓컬리, 오아시스 같은 강자들에게 넘기고 다른 미래 먹거리를 찾는 게 낫다는 것이 관련 업계의 중론이다.

지금 유통업계에는 '포기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경쟁사가 한다고, 시장 전망이 좋다고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판단이다. 회사는 물론 장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여전히 새벽배송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이 쓰러지고 있고,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 등의 사고는 사회 문제가 되고 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조그마한 소비재 하나까지 새벽배송을 시키면서 발생하는 쓰레기 과다 등의 문제도 우리 미래를 망치게 하는 요소다.

코로나19도 끝이 보이는 시점에서 유통업계는 새로운 경쟁을 준비해야 한다. 강자는 강자들대로 수익성 개선을 고민해야 하고, 새벽배송에서 발을 뺀 기업들 역시 또 다른 새 먹거리를 찾아 나서야 한다. 새로 출범한 정부도 막무가내식 규제보다는 기존 대형마트 등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열어줘야 한다. carlove@

### 마음상담소

## 극단적 선택도 전염된다

일주일 전 14년을 함께 살아온 반려견이 무지개다리를 건넜다. 노화로 건강상태가 안 좋았지만 그렇게 갑자기 떠날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었는데, 예고 없이 벌어진 일이라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다. 동고동락하던 반려견의 죽음도 이처럼 마음이 아픈데 하물며 가족이나 친구, 지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그 슬픔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그 죽음이 극단적 선택이라면 더더욱 충격적일 것이다.

2015년부터 3년간 한국에서 최초로 자살생존자 실태조사를 진행한 한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1명이 약 6명의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고, 평균 20명 정도의 주위 사람들이 자살생존자로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한다. 자살생존자란 주변인의 극단적 선택 이후 남겨진 사람, 즉 주변의 중요한 사람이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뒤 사회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사람을 뜻한다.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관계지향적인 사회에서는 자살생존자의 범위가 더 넓다고 한다. 코로나바이러스만 전염되는 게 아

니라 극단적 선택도 전염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다.

2020년 기준 극단적 선택을 한 사망자 수는 실제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사망자 수의 20~40배로 추정되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한 해 동안 극단적 선택을 결심하고 실행에 옮긴 사람은 26만 명에서 52만 명에 이른다는 계산이 나온다. 게다가 이들이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하면 극단적 선택의 영향권에 있는 위험자는 더욱 늘어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주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친밀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강하게, 더 오래 받는다고 한다. 처한 여건이 경제적 문제나 건강 악화, 실패 또는 상실, 지지체계 미흡 등 취약한 상황이라면 영향이 더 크다고 한다. 한 사람의 극단적 선택을 가볍게 볼 일이 아니라는 얘기다. 우리가 극단적 선택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현주 서울 강서구보건소 사회복지사

###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 내가 있어야 할 곳 The 2023 Mohave



Movement that inspires

구입문의 1588-1100 | 고객센터 080-200-2000 | [www.kia.com](http://www.kia.com)

기어는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가격과 조건으로 고객님의 신뢰를 지키겠습니다. ▷모하비 3.0 디젤 7인승 18인치 : 복합 9.1km/l (도상: 8.0km/l, 고속도로: 10.9km/l) | 배기량 2,959cc | 공차중량 2,30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215g/km - 5등급 ▷모하비 3.0 디젤 7인승 20인치 : 복합 9.2km/l (도상: 8.1km/l, 고속도로: 10.9km/l) | 배기량 2,959cc | 공차중량 2,31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214g/km - 5등급 ▷모하비 3.0 디젤 6인승 18인치 : 복합 9.3km/l (도상: 8.2km/l, 고속도로: 11.0km/l) | 배기량 2,959cc | 공차중량 2,28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211g/km - 5등급 ▷모하비 3.0 디젤 6인승 20인치 : 복합 9.2km/l (도상: 8.1km/l, 고속도로: 10.9km/l) | 배기량 2,959cc | 공차중량 2,30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214g/km - 5등급 ▷모하비 3.0 디젤 5인승 18인치 : 복합 9.3km/l (도상: 8.2km/l, 고속도로: 11.0km/l) | 배기량 2,959cc | 공차중량 2,265kg | 복합CO<sub>2</sub>배출량 211g/km - 5등급 ▷모하비 3.0 디젤 5인승 20인치 : 복합 9.3km/l (도상: 8.2km/l, 고속도로: 10.9km/l) | 배기량 2,959cc | 공차중량 2,280kg | 복합CO<sub>2</sub>배출량 212g/km - 5등급 ※의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사양구성은 차급 및 선택 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